

Ver 6.

海賊

: 바다로 간 산적

harimao pictures

1. 위화도 - 압록강 하류 [밤] / 비

자막 - 1388년 5월 22일 압록강 하구 위화도

눈조차 뜨기 힘든 폭풍우다. 장마로 누렇게 변한 압록강이 무서운 기세로 흐르고 있다. 강이 내려다보이는 넓은 언덕에는 대규모 군진이 자리 잡고 있고, 압록강을 가로질러 군진과 강 건너 요동을 연결하는 부교가 줄줄이 연결 되어있다.

2. 위화도 - 장사정 군막 [밤] / 비

수십 마리의 말이 묶여있는 막사,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하다. 화로가에 둘러 앉아 꿩고기를 구우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가장 높은 계급인 별장 장사정(30세)과 황중근(30세), 그 밑으로 춘섭(30대중), 산만(20대초) 등 부하들의 얼굴이 소개된다. 장사정은 술을 돌리며 분위기를 돋운다.

- 장사정 부교를 띄우느라 그간 고생이 많았다. 내일이면 드디어 요동 정벌이 시작되니, 이 전쟁만 이기고 돌아가면 엄청난 금은보화에, 비단으로 뽕 댄으며 평생 호강하며 사는 거야.
- 춘섭 우리 같은 주진군 나부랭이를 누가 챙겨줍니까. 울어봐야 변방의 복소리지.
- 장사정 낭장님께서 확실히 약속 하셨어.
- 산만 (피식) 한 두 번 속았습니까.
- 장사정 이번엔 진짜라니까? (중근 보며) 중근이도 같이 들었어. 맞지?

중근은 근심걱정 가득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만 있다.

- 장사정 넌 또 왜 똥물 마신 얼굴이야?
- 중근 오늘이 오월 하고도 스무이틀이니... 마누라가 아이를 낳았을텐데, (한숨) 이려다 애 얼굴도 못보고...
- 장사정 어허~ 혼사도 못 치른 친구 먼전에서... 걱정말게. 순산했을 터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는 살려서 돌아 갈 테니까. 무조건 내 뒤만 따르게 (산만에게) 고기 탄다.
- OS 반야바라밀!

목탁 소리 들린다. 어느새 군막 안으로 들어온 스님이 합장을 하고 있다. 장사정 등이 황당하게 웃는다.

- 춘섭 아주 개코여~ 중이 고기냄새에 아주 환장을 한다니까!
- 스님 내 입으로 고기가 들어가면 풀이되고 술이 들어가면 물이되니 이게 바로 해탈의 경지가 아니겠나? 아미타불~
- 춘섭 (비아냥) 그러게 그 입은 아주 요술 입이여! 그 입으로 말만 하면 다 개소리가 되니!

스님 개새끼 귀에는 개소리로 들릴 수 밖에...
 춘섭 뭐여?
 장사정 (정리하며) 자... 자~ 스님! 한자리 해~
 춘섭 스님은 무슨! 이 인간은 님짜빠고 그냥 스야 스!
 스님 장별장님 밖에 없소이다! 그럼 소승 한잔 찌끄리고 갑니다. 모두에게 축수를 리오~

스님은 춘섭 따위가 날리는 비아냥은 무시하고 병재 들어 술을 마신다.

장사정 자, 자! 스님께 축수까지 받았으니, 뒷일은 걱정 말고 군인답게 굴자.
 (잔을 높이 들며) 싸우자!

그때 북소리가 울린다. 잠시 후 군막을 걷고 모흥갑(30대중)이 들어온다.

장사정 형님! 한잔 하시죠?
 모흥갑 군인이 술잔 들고 싸우더냐... 장별장, 황별장은 따르라.

3. 위화도 - 군진 [밤] / 비

간혹 내리치는 번개의 빛에 10만 병사들이 주둔한 군진의 형체가 잠시 드러난다.
 곳곳에 말들이 묶인 군막 사이로 장사정과 중근, 모흥갑이 걸어간다.

장사정 형님! 이번엔 위에 얘기 잘 해서 애들 뺏 좀 챙겨줘야 됩니다.
 모흥갑 조용히 입 다물고 나만 믿고 따르면 된다.
 장사정 형님이야 믿고 따르죠. 근데 윗 양반들은 아니라니까?
 모흥갑 우리가 선봉에 선다. 부귀영화가 코앞이야.
 장사정 (중근에게) 들었지? 다 잘 될 거다. 애기도 낳고 부자도 되고.

하늘이 찢어질 듯 천둥이 운다. 엄청난 크기로 지어진 이성계 군막 앞,
 칼과 활로 무장한 경계병 수십 명이 막사를 지키고, ‘우군도통사 이성계’¹⁾ 군기가 비바람에
 뭉서리를 치고 있다.

장사정 일행이 군막으로 들어간다.

4. 위화도 - 이성계 군막 [밤] / 비

불교의 나라답게 막사 안쪽에는 불상이 놓여있고, 불단에는 과일 등 음식물이 올려져있다.
 이성계 아래 긴 탁자에는 장군들 20여 명이 서열대로 앉아있다.
 모흥갑과 장사정 등 장교들은 자리도 없이 장군들 뒤에 서있다. 뒤늦게 막사 안으로 들어오
 는 스님 모습이 보인다.

이성계 모두 뜻을 모아주어 기쁘다. 날이 밝는 대로 회군토록 하겠다.

1) 右軍都統使 李成桂

모든 장군, 장교들은 이미 의견을 조율한 듯 동요가 없지만
장사정도 중근도 처음 듣는 얘기라 놀란 얼굴이다. 장사정이 모홍갑을 쿡 찌른다.

장사정 (작은 소리로) 선봉대람서.

모홍갑이 조용히 하라며 장사정 옆구리를 찌른다. 장사정이 한 마디 더 하려 하자 더 세계
옆구리를 찌르는 모홍갑. 이성계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다.

이성계 이치에 맞지 않는 전쟁을 끝내고 부패하고 무능한 고려를 바로잡아 새 역사의
기틀을 잡을 것이다. 새로운 고려의 시작은 최영 장군을 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니, (모홍갑을 바라보며) 선봉장은 준비가 되었는가.

모홍갑 예. 선봉대로서 온 몸을 바치겠습니다!

장사정 (놀라 속삭이며) 이거 역절질,

모홍갑이 또 옆구리를 지르는 바람에 장사정은 말도 마치지 못한다.

이성계 나 이성계, 오늘의 위화도 회군이 새 역사의 효시였음을 그대들과 함께 증명
할...

OS (말끝으며) 저기요~

난데없이 끼어드는 목소리, 장사정이다.

도무지 말을 섞을 군번이 아니라 모홍갑이 호통을 치며 발언을 막는다.

모홍갑 그만. 입 닫아라.

이성계 아니다. 이 길은 장졸이 함께 하는 길이다. 말 하거라.

장사정 요동이 코앞인데 왜 안 싸우구요?

모두 당혹스러운 얼굴로 장사정을 본다.

이성계는 불쾌한 눈으로 모홍갑을 한 번 보고는 조목조목 설명을 해준다.

이성계 ...못 들었더냐. 우리가 회군함은, 첫째. 빗물이 넘쳐 강을 건너기가 어렵다.

장사정 예.

이성계 둘째 장마로 활이 풀리고. 활촉이 녹는다.

장사정 예.

이성계 셋째 보급선이 길어 진퇴난곡에 빠질 것이다.

장사정 예.

이성계 넷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장사정 예에?

이성계 황당해 한다. 스님도 피식 웃는다.

모홍갑은 장사정의 행동에 안절부절 못하고 이성계의 눈치를 살핀다.

장사정 전쟁을 예의 차리고 합니까? 정 맘에 걸리면 큰절 한 번 올리고 싸우면 될 거 아녘니까.

모홍갑 다물라. 별장 따위가 입 놀리는 자리가 아니다.

장사정 말이 웃기잖아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지 뭐 비와서 안 된다, 물 불어서 안 된다, 예의가 아니다. 역적질은 예의랍니까? 군대 모은 김에 돌아가서 나라 뒤엎고 한자리씩 차지하자 그거 아녘니까.

정적이 돈다. 이성계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고 모홍갑을 본다.

이성계 부하를 보면 장수를 아는 법. 내가 너를 잘 못 믿었구나.

장사정 나두 대장군님 잘 못 믿었소. 드럽고 치사하게 나라 훔쳐 먹고 부자 되느니 차라리 산적질이나 하겠소. (모홍갑에게) 형님, 갑시다! (중근에게) 중근아 가자!

돌아서는 장사정, 분노가 극에 달아 칼자루를 잡는 이성계...

모홍갑은 장사정을 죽여야 자기가 살 수 있음을 안다.

모홍갑 장별장!

돌아보는 장사정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모홍갑.

뾰족없이 목이 잘릴 찰나, 칼 튕기는 소리가 난다.

중근이 어느새 칼집채로 모홍갑의 칼을 막고 있다.

중근 형님!

장사정은 모홍갑이 자기 목을 치려했다는 충격에 대응 할 생각을 못한다.

모홍갑은 다시 칼을 휘두르고 중근은 칼을 뽑지 않은 채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다.

모홍갑 나만 믿고 따라라. 애기 얼굴은 봐야지.

중근 칼 뽑게 만들지 마쇼 형님. 우린 모두 형제요.

중근의 눈빛이 매섭다. 결국 칼을 내리는 모홍갑, 중근도 안심하고 칼을 거두는 순간, 모홍갑이 돌변해 중근을 벤다.

장사정 중근아!

놀랄 사이도 없이 모홍갑이 공격을 한다.

장사정도 중근처럼 칼을 뽑지 않은 채 막아내지만, 가슴에 길게 상처를 입었다.

중근의 시신을 바라보는 장사정... 분노와 배신감에 얼굴이 일그러진다.

상황이 다급함을 느낀 스님이 서둘러 막사를 빠져나간다.

장사정 형님... 중근이 죽었소...

다시 칼을 휘두르는 모흥갑, 장사정도 드디어 칼을 뽑는다.

5. 위화도 - 이성계 군막 앞 [밤] / 비

막사 출입문이 찢어지며 장사정이 튕겨 나오고, 뒤따라 뛰어나온 모흥갑과 함을 겨룬다. 한 함, 한 함 이어질 때 마다 검에서 불꽃이 튀긴다. 그 순간 번개가 치며 두 사람 주변의 지형지물이 드러난다. 거대한 산맥과 검푸른 강을 배경으로 두 무사의 처절한 싸움이 벌어진다.

군막 안에 있던 이성계와 장수들이 몰려나와 둘의 싸움을 지켜본다. 장수와 별장답지 않은 팽팽한 싸움이 계속된다. 모흥갑의 회심의 일격을 피한 장사정의 칼끝이 모흥갑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간다. 뺨에서 가느다란 핏물이 흘러내리는 모흥갑. 모흥갑에 치를 떤다.

장사정 칼에는 예의가 없소. 베어버리면 그만인 것.

모흥갑이 더 거칠게 공격을 시작한다. ‘개국공신’이라는 달콤한 미래가 그의 힘을 끌어올린다. 서로에게 잔부상을 입히며 격하게 진행되던 싸움은, 결국 가슴에 부상을 입었던 장사정이 수세에 몰리게 된다. 깊은 숨을 헐떡이며 지친기색이 역력한 장사정, 모흥갑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일격을 날린다. 그 순간 마지막 힘을 쥐어짜 칼을 피한 장사정이 모흥갑의 얼굴을 세로로 베며 한쪽 눈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 눈을 감싸며 비명을 지르는 모흥갑, 장사정은 그가 떨어뜨린 칼을 들어 이성계에게 던진다. 곧바로 날아간 칼은 이성계 어깨에 박히지만, 이성계는 대장군답게 미동도 없다.

이성계 니 놈의 숨씨가 아깝다만 이미 늦었느니라! (장병들에게) 처라.

들러서있던 경계병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장사정을 향해 달려간다. 싸움에 지친 장사정은 저항을 포기한 듯 무릎을 꿇는다. 장사정이 그대로 죽는가 싶었는데, 말울음 소리가 들리며 수십 마리의 말들이 경계병들을 밀치며 들어온다. 날뛰는 말 사이에서 혼비백산하는 병사들, 그 틈에 말을 타고 오는 춘섭과 부하들이 보인다. 춘섭이 말에서 내려 장사정을 부축해 태우고, 자기는 지나는 말 하나를 잡아탄다. 말을 몰고 달아나는 장사정과 부하들 뒤로 궁수들이 활을 겨눈다. 번개가 치고, 찰나의 불빛에 장사정 뒤로 새까맣게 날아오는 화살들이 보인다.

6. 황해 - 상선 ↔ 해적선 [낮]

고함소리,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 대북소리, 뿔피리 소리 등으로 정신이 없는 바다. ‘평양만덕’²⁾ 깃발이 휘날리는 대형 상선 옆에는 해적선이 새끼처럼 붙어있고, 뱃전에서는 피할 곳 없는 상단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다.

2) 平壤萬德

상선갑판

해적단 소단주 여월이 한 손에는 연노(연발 화살), 다른 한 손에는 쿠쿠리검(네팔 전통 검)을 들고 상단 무사들을 갑판 한쪽으로 몰고 있다.

뒤로 묶은 긴 생머리, 몸태가 드러나는 붉은 옷, 거침없이 적을 베는 단호한 검술,

그리고 손목에 가죽 끈으로 감긴 작은 방울이 인상적이다.

여월은 살생을 피하려 한다. 연노는 하반신을 겨냥하고, 쿠쿠리검은 급소를 피해 찌른다.

창을 쓰는 중년의 해적 용갑이와, 철퇴를 든 어린 참복이 등이 여월을 도와 무사들을 제압해나간다.

늙은 해적 철봉이는 쇠몽둥이를 든 채 뱃멀미로 연신 구토를 하며 힘겹게 싸우는 중이다.

그는 구토, 공격, 방어를 번갈아 하느라 그 누구보다 바쁘고 위험하다.

이윽고 갑판 한쪽으로 모두 몰린 무사들과 상단 행수.

무사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칼을 던진다.

뒷전에서 해적단주 소마가 검은 이를 드러낸 채 웃으며 걸어온다.

여월 등을 제치고 무리 앞으로 나서는 소마.

소마 해적단 대단주 소마라 하오. 애기 불상 열 개가 있다 들었소만.
행수 그, 그건 다, 다른 배로.

여월의 연노를 낚아채는 소마. 아무 망설임 없이 무사들에게 발사한다.

심장에 화살이 박힌 채 일시에 쓰러지는 무사들……. 행수 혼자만 살아남았다.

행수가 겁에 질려 곧바로 실토한다.

행수 서,서, 선실 바닥 판자를 뜯어내면……

행수의 심장에 연노가 박힌다. 알았으니 더 들을 필요도, 살려둘 필요도 없다.

소마가 여월에게 연노를 건네준다.

소마 여월아. 살려두면 인연이 되고, 인연은 우환을 만드느니라.
 (돌아서며 부하들에게) 부처님 피시거라~

불 일 다 마치고 돌아가는 소마, 여월이 죽은 행수와 무사들을 바라본다.

소마의 잔인한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선실

뜯어지는 판자들, 그 밑으로 상자가 보인다. 상자를 열어보면 황금 애기 불상이 들어있다.

부하들이 상자를 들고 나가면 여월과 용갑, 참복이 남는다.

그 순간 선실 깊은 벽속에서 인기척을 느끼는 여월.

굵은 쇠사슬로 단혀있는 문을 용갑이 도끼로 부수면 어둠속에서 사람들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난다. 젊은 처녀들 십수명이 갇혀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처녀들. 그 동안 학대가 심했던 모양새다.

용갑 처녀까지 팔아먹는 놈들이었구만요!
여월 두려워 말거라!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여월 처녀들을 뒤로 하고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여월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돌아보면 간절한 눈빛의 흑묘(여, 13세)가 여월 옷자락을 잡고 서있다.

흑묘 언니...
참복 뻑~ 소단주님한테 언니라니!
여월 같 곳이 없느냐?

고개를 끄덕이는 흑묘

여월 우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해적이다!
흑묘 노비두 마찬가지예요! 밥이고 빨래고 뭐든지 잘 할 수 있어요~
여월 (피식) 이제 우리가 너의 형제고 바다가 너의 집이니라! (용감에게) 아이를 챙겨라!
용감 예~

상선갑판

선루위에서 밧줄을 잡고 뛰어내리는 여월.
갑판위에서 여월의 모습을 우상처럼 바라보는 흑묘.
상선 옆에 서 있던 해적선 돛대를 한 바퀴 돌며 활강하듯 날아가는 여월

7. 타이틀 시퀀스

Title IN

해적 : 바다로 간 산적

8. 연안 - 해적선 [밤]

상갑판

육지의 불빛이 아주 가깝게 보이고, 관군들이 타고 온 배가 해적선 옆에 묶여있다.
옛날 상선에서 탈취한 황금불상 중 하나가 해적선 상갑판 끝에 모셔져 있다.
상갑판에는 수군 별장들이 호위를 서고, 그 안쪽에는 소마가 벽란도 수군 오만호를 맞이해
거한 대접을 하고 있다.

소마 여기서 배를 타고 석 달을 가면 구라파가 나옵지요. 나마니아랑 토이기³⁾에 들러싸인 그 바다는 색이 까매 흑해라 불립니다. 저 멀리 아블리가⁴⁾에 가면 빨간 바다 홍해, 더 멀리 아라사⁵⁾ 북쪽으로 가면 바닷물도 얼어붙는 하얀 바다 백해, 바다라고 다 푸른 게 아닙니다.

3) 나미니아(羅馬尼亞) : 루마니아 / 토이기(土耳其) : 터키

4) 아블리가(阿弗利加) : 아프리카

5) 아라사(俄羅斯) : 러시아

소마가 너스레를 떠는 동안 용갑이와 참복이가 상자를 들고 상갑판으로 오르고 있다.

오만호 이 나라 저 바다를 다 다녔더니, 과연 어떠하더냐.
소마 부처께서도 집 나가 그 고생 하시다가 해탈의 경지에 오르셨잖습니까. 저 또한 먼 길 들고 돌아 황해로 와서야 겨우 깨달음을 얻었지요. 바다건 쇠붙이건 노란 게 최고다.

소마 말에 맞춰 상자 뚜껑을 여는 용갑. 금목걸이, 금비녀, 금그릇, 금화 등등 황금이 가득하다. 오만호가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술잔을 기울인다.

하갑판

여월 이하 용갑이, 참복이, 흑묘 등등이 한 곳에 모여 상갑판을 보고 있다.
용갑이 등은 불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용갑 소단주님, 애들은 서속밥 먹고 된똥 누는데 대단주는 고기 먹고 기름똥 싹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참복 피 흘리며 털어봤자 반은 뇌물로 먹이고 나머지는 지 배 채우는데 우리 뭍이 있겠소?
여월 잔말 마라. 그런다고 우리가 굶더냐.
용갑 대단주께서 벽란도에 기와집을 열두 채나 샀다던데.
흑묘 집뿐이요? 쟁여놓은 땅문서로 똥을 닦아도 일 년 열두달은 닦을 거요
용갑 지 배 불리느라 형제들 피똥 싸는 줄도 모르고.
여월 그만들 해라. 미우나 고우나 형제다.
흑묘 형제는 무슨, 제가 노비 생활 해봐서 아는데 이견 형제 사이가 아니라 주종 관계라니까요?

용갑이와 참복이는 그런 흑묘가 귀엽다.

용갑 이거 이거, 지 죽을 줄 모르고 나불거리는 거 보니 해적 다 됐네.
흑묘 소단주 언니, 치시죠?
여월 흑묘야!

여월이 엄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흑묘는 개의치 않는다.

흑묘 모두 원하는 거 알잖아요. 뒤집어엎고 언니가 대단주 자리 오르면
여월 흑묘야……. 굶어도 형제고 불러도 형제다. 형제끼린 칼을 겨누는 게 아니다.

단호한 여월, 누구도 대꾸를 하지 못한다.

상갑판

오만호 허나 어쩐다… 평양 상단에서 이미 적경을 고했어. 우도통사까지 장계가 올랐으니, 너희들 모가지를 치지 않으면 내 목이 잘릴 판이야.
소마 일리가 합당하십니다. 만호님도 자리가 자리시니만큼 실적은 올리셔야지요.

해적 수급 열 정도면 되겠습니까?

탐욕스러운 웃음으로 만족한 표정을 짓는 오만호. 상자 뚜껑을 닫는다.

소마 당분간 기찰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소마가 일어서더니 상갑판 끝에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여월을 부른다.

소마 소단주야~ (여월이 바라보자) 아이들을 모으거라.

CUT TO

하갑판에 여월을 비롯한 모든 해적들이 모여 있다.

오만호는 소마 뒤에서 해적들을 살피는데, 그의 눈길이 여월에게 닿아있다.

여월이 제법 마음에 드는 눈치다.

해적들을 둘러보며 한명 씩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소마.

소마 먹쇠, 새치, 똥자루, 놈놈이, 격쇠, 왕눈이

늑거나 약해보이는 해적 6명이 지목된다.

소마 그리고 구역질!(철봉을 지목한다.)

철봉 저요?

소마 그래 배멀미하는 니 놈 말이다!

지목당한 사람들 앞으로 나선다. 모두들 불안한 눈빛인데,

소마 형제들을 위한 길이니 기꺼이 떠나도록 하여라.

수군 별장들이 그들을 밧줄로 묶기 시작한다.

떠날 그들도, 남은 해적들도 비로소 무슨 상황인지 안다.

철봉 단주님, 대단주님…… (반항하다 창끝에 찔리자) 앓 따거! 안그래도 바다는 체
질에 안맞아서 관들려구 했다고요~ 이씨! 한몫 챙겨주진 못할망정 이진 아니
지~

철봉이 다급하게 애원하지만 소용없고, 여월이 한 걸음 나선다.

여월 대단주, 형제들을 버리는 겁니까.

소마 저런 것들이야 저자바닥 한나절만 훑어도 수십 명씩 살 수 있는데, 형제라니.

여월 이진 해적의 도리가 아닙니다.

소마 대단주 명령에 대꾸하는 것도 해적의 도리가 아니지.

(만호에게) 가져가시지요.

오만호 (여월의 미색을 보고) 이봐 단주, 내 저 계집을 데려갈까 싶은데.

소마 허허, 그래도 명색이 소단주입니다. 대신, 그 옆에 계집은 어떻습니까.

흑묘를 가리키는 소마. 흑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오만호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지만 그렇게라도 만족을 찾으려 한다.

오만호 썰대신 닭이라. 오늘은 그리 하지. (별장에게) 저 년도 썰어라.

별장 둘이 달려가 양쪽에서 흑묘 팔을 잡아 끌고간다.

흑묘 안 놔? 니들 죽어! 나 해적이야. (여월에게) 언니, 소단주 언니.

흑묘를 외면한 채 소마만 노려보고 있는 여월.

여월 그만 하시지요.

소마 남은 아이들에게는 술과 고기를 내주거라. 술 한 잔에 웃고 떠들다 보면 다 잊혀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월이 연노를 들어 별장들 다리를 쏜다.
별장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흑묘는 달려와 여월을 안는다.
소마는 얼굴이 굳고 오만호는 대노해 칼을 뽑으며 상감판에서 뛰어내린다.

오만호 이년!

여월을 공격하려는 오만호, 흑묘를 등 뒤로 숨기는 여월...
남아있던 해적들이 칼을 뽑자 멈칫하는 오만호, 수군들도 모두 무기를 든다.
일순 대치 상태를 이루는 해적과 관군들. 오만호가 소마를 돌아본다.

오만호 단주!

소마 모두 칼을 거두어라.

아무도 소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소마가 갈잡은 듯 피식 웃으며 풀어두었던 칼을 집어 든다.
무게만도 적잖이 나가는 대도다. 대도를 뽑아 휘두르며 여월에게 다가오는 소마.

여월 ...치겠습니다.

소마 오갈 데 없는 것들 거두어 주었더니 은혜를 모르기는 개돼지만 못하구나.

말을 마치며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 소마. 여월이 쿠쿠리검을 들어 대적을 한다.
만호는 수군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다.

만호 전부 도륙을 내...

말을 멈추는 만호. 십여개의 칼들이 오만호의 목을 겨누고 있다. 만호는 꼼짝없이 칼을 내려놓고, 수군들도 선불리 덤비지 못한다.

싸우는 사람은 오직 소마와 여월뿐이다.

힘이나 기술은 소마가 월등하여 여월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소마의 파상공격에 겁까지 놓친 여월,
위기의 순간, 여월이 은빛 허리띠를 풀다. 회초리처럼 낭창낭창하게 휘어지는 연검이다.
소마의 검을 막을 때마다 휘어져 그를 공격하는 연검. 방어가 공격이 되는 셈이다.
소마가 당황하는 사이 여월이 승기를 잡고, 결국 그의 목에 검을 얹는다. 승부는 갈렸다.

여월 더 하시겠소?
소마 ㅋㅋ, 반란이라……. 누가 시키더냐.
여월 바다가 시키더이다.

낄낄거리며 바다로 칼을 던지는 소마, 남은 해적들이 환호를 올린다.

여월 (오만호에게) 그대나 우리나라 똑같은 도적이오.
 조용히 물러나겠소? 아니면 이자와 같이 죽겠소?

소마는 위기감도 없이 비실비실 웃고, 오만호는 분노와 모욕감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9. 황해 - 해적선 [밤]

망망대해를 빠르게 나아가는 해적선, 달빛이 바다에 일렁인다.
소마가 손이 뒤로 묶인 채 뱃전에 서있다.

여월 그대는 스스로 왕이 되어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 했다. 하지만 진정한 해적은
 왕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형제이기 때문이다.
소마 강한 자가 군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흩어지기 마련인걸. 이 배도 운명이 다
 했구나.
여월 그간 지낸 정리를 보아 복속한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소마가 낄낄거리며 갑판 난간 위로 올라선다.

소마 복속? 해적의 마지막 길은 둘 중 하나야. 물고기 밥이 되던가 아니면…

잔인한 미소……. 그대로 몸을 뉘어 바다로 떨어진다.
용감이가 급히 바다를 살핀다. 소마를 삼킨 바다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는다.

흑묘 나머지 길 하나는 뭐야?
용감 (고개를 갸웃) 그러게~ 저 인간 끝까지 꺾적지근하네~

소마가 사라진 바다를 바라보던 여월,

여월 바다가 차다. 이불 덮어 드려라.

용감이가 소마의 깃발을 바다로 던진다. 소마가 사라진 자리로 떨어지는 깃발.
상갑판으로 올라가는 여월, 머리와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낀다.
멀리서 귀신고래가 몸을 뒤집으며 솟아오른다.

10. 개경 - 원덕전 [낮]

불교문화를 입은 고려식 궁궐은 단청과 연등, 붉은 구슬 등 웅장하고 화려하다.
이성계는 높은 용상에 앉아있고 정도전 이하 나머지 신하들은 그 아래 좌우로 벌려 앉아있다.

정도전 산에는 산적이 발호하고, 들에는 마적이 창궐하며 바다는 해적들이 종횡하니 백성들이 마음 기댈 곳 없어 부유하고 있나이다. 속히 토벌하시어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건국의 기초를 닦는...

이성계가 신경질적으로 탁자를 내려치며 정도전의 말을 끊는다.

이성계 이보세요 삼봉⁶⁾.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소. 개국한지가 언젠데 국호도 없고 국새도 없으니 백성들이 여전히 고려의 백성인줄 알고 있는 것 아니오.

정도전 (짜증난다) 일리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즈은하! 예문관 학사 한상질이 명 황제께 국호와 국새를 하사받아 수일 내로.....

이성계 수일, 수일 한 지가 벌써 몇 달째요. 다시 사신을 보내던지 공이 직접 가던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정도전 (빈정 상했다) 예 즈은하~

깊이 고개를 숙이는 정도전, 하지만 입 속으로 욕을 주워 담고 있는 중이다.

11. 황해 - 사행선 [밤]

괴괴한 달빛 아래 사행선단이 황해를 한다.

선수와 선미에는 화포가 장착되어 있고 뱃전에는 창검이 꼽혀있으며 갑판 양쪽에는 구명정으로 사용할 나룻배까지 준비되어 있다.

갑판에 서있는 한상질과 백선기, 한상질은 눈물 그렁한 눈으로 뱃가를 올려다보고 있다.

12. 회상 - 명나라 황궁 [낮]

명나라 대신들이 까맣게 몰려있는 앞에 한상질이 부복하여 있고, 명 황제는 범접하지 못할 높은 연단에 위치해 있다. 역관이 둘의 말을 동시통역한다.

한상질 권지국사 이성계가 주달하길, 폐국 고려 공민왕의 국새를 반납함과 아울러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등의 칭호를 가지고 국호를 아뢰오니 삼가 재가해 주시기를 간청하옵니다.

황제 (中) 동이의 국호로는 조선이라는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전래한 지 오래 되었으니 그리 할 것이다. 또한 조선에 새 국새를 내리니 천명을 따라 후사를 영구히 번성케 하라. 아울러 그간 원국에 했던 바대로 공녀 500명과 환관 200명을 바쳐 신하의 나라로서 예를 다하도록 하라!

한상질 앞에 국새가 들어있는 흑목단목함과 <朝鮮>이란 국호가 적힌 비단 두루마리가 펼쳐

6) 삼봉 (三峰) : 정도전의 호.

저 있다. 감읍하는 한상질 목소리 들린다.

한상질 황은이 망극, 망극, 또 망극하옵시다 폐하!

13. 현재 - 황해 : 사행선 [밤]

한상질의 시선이 닿아있는 곳, ‘조선’ 깃발이 보인다.

한상질이 국새함을 연다. 거북문양 손잡이가 달린 국새(국인)⁷⁾가 들어있다.

한상질 이것으로 조선의 건국을 우리 손으로 완성하는 것이야.

백선기 그간 별 일은 없었겠지요? 가보니 왕이 또 바뀌었다던가. (한상질이 황당한 눈으로 바라보면) 걱정이 되어 그러합니다. 들썩거리던 토호들한테 벼슬 하나씩 주고 눌러 앉혔는데 국호도 없고 국새도 없으니 ‘이게 뭐가’ 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공녀와 환관을 바친다고 팔도의 처녀들과 사내애들을 잡아들이면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똑같다 할 것 아닙니까?

한상질 대국이 원하면 소국이 따라야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백성들은 따르는 것이야. 불평불만 무서워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나? 하긴 자네같은 무관이 뭘 알겠나...

한상질이 말을 하다가 고개를 가웃한다.

한상질 이보게!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

어디선가 기분 나쁘게 찰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에 집중을 하던 백선기가 인상을 구기며 명을 내린다.

백선기 전군, 전투 준비하라.

시끄럽게 타종이 울리고, 병력들은 창, 활 등을 들고

이물로 이동하고 몇몇은 화포에 화약을 들이붓는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앞으로 바라보는 백선기와 군졸들.

검은 바다에서 기분 나쁘게 찰랑이는 물소리, 물소리가 점점 커진다.

백선기 화전을 올려라.

불화살들이 일시에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멀지 않은 곳에 몸을 뒤집으며 유영을 하는 귀신고래가 보인다.

교위 새끼고래입니다.

백선기 미물이 무엄하게 사행선 앞길에서 노니는가. 쫓아라.

교위 예.

7) 명은 국새가 아닌 ‘국인’을 내림으로 조선을 체후국으로 깎아내림. 편의상 국새로 통칭.

군졸들이 일시에 활을 날리고 창을 던진다. 화살에 맞는 새끼고래,
물을 뿜던 새끼 고래가 놀라 애처롭게 뿑~ 소리를 내며 몸을 뒤틀어댄다.
검은 그림자를 따라 계속 활과 창을 날리는 군졸들.
갑자기 그들 앞으로 산처럼 검은 거대한 어미고래가 몸을 솟구치며 나타난다.
그 바람에 엄청난 파도가 일고, 뱃전으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진다. 갑판 위를 뒹구는 활어들.
한상질은 불안한 마음에 국새함을 들고 탁자 아래로 들어간다.

교위 (놀랐다) 주, 주, 주, 주
백선기 (더 놀랐다) 죽여라. 화포를 쏘라.

새끼와 사행선 중간에 멈춰있는 어미 고래.
새끼고래가 숨을 쉬는 사이, 어미고래가 쏟아지는 공격을 몸으로 막는다. 대포알이 스쳐지
나가 여기저기 상처를 입는다.
새끼가 마저 숨을 쉬고 물속으로 내려가자 어미도 뒤따라 사라진다. 그 자리에 포탄이 떨어지
며 물보라가 일어난다. 공격을 멈추는 관군들.

한상질 죽었느냐?

잠시 후, 새끼고래가 숨을 오래 참지 못하고 다시 저 멀리 물 밖으로 솟아오른다.

백선기 저기 새끼가 떠올랐다! 화포! 화포! 방포하라~

병사들이 새끼를 향해 대포를 겨냥하려고 하는 순간, 깊은 바다 속에서 고래의 울음소리가 들
려온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한다.
순간, 배와 새끼고래 사이로 거대한 물길의 높이 솟구친다.
어마어마한 고래의 몸통전체가 공중으로 솟아오른 것이다.
뒹이 나가 그 모습을 쳐다보는 관군들. 공중에서 정점을 찍은 어미고래가 포물선을 그리며
사행선위로 떨어진다. 몸을 던져 고래를 피하는 관군들.
고래의 몸통이 배의 가운데를 내리찍자 빠지직! 하며 사행선이 두동강 나고 만다.
그 충격에 돛대가 부러지며 돛대 끝에 달려있던 <朝鮮>깃발이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며 어
미 고래의 등에 박힌다.
삐익~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는 어미 고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던 한상질은 검은 파도 속에서 필사적으로 주위를 살핀다.
멀리 앞에 국새함이 둥둥 떠 있는 것이 보인다.
국새함을 향해 헤엄을 치는 한상질, 그 때 고래의 거대한 입이 군선 잔해와 함께 국새함을 삼
키며 지나간다.
그녀의 등에 박힌 조선 깃발이 필력이며 멀어져가다가 수면 아래로 잠긴다.

14. 황해 - 바다 속 [밤]

귀신고래 모녀가 깊은 바다로 잠수한다.
어미 등에 박힌 조선 깃발은 떨어지지 않고, 붉은 피가 번져 나온다.

15. 송악산 [낮]

험준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송악산의 전경이 펼쳐진다.
숲은 한낮임에도 햇빛이 들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다.
언제 산짐승이 출몰할지 모르는 좁은 산길을 걷고 있는 철봉의 모습이 보인다.

철봉 (소심하게) 계세요? 미친 호랑이님~ 계세요?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움찔하는 철봉. 슬금슬금 돌아선다.

철봉 (한숨) 이 산이 아닌게비다...

그 순간, 낙엽 위를 걷던 철봉의 발목을 휘감는 듯, 갑자기 몸이 거꾸로 솟구치며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리는 신세가 된다.
순간 숲속에서 시커먼 그림자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철봉 사.... 사람...살

철봉이 뭔가 말을 하기도 시커먼 그림자의 사내(산만)가 다가와 몽둥이로 내려친다.
몽둥이 화면을 덮으며 암전.

16. 장사정 산채 [낮]

이슬만 간신히 피할 수 있게 얼기설기 만들어놓는 가난한 산채.
산적 30여 명이 좌우로 길게 도열해 서열대로 앉아있다.
이성계 군막에 있던 스님과 춘섭은 서열 1위 자리에, 산만이는 제일 말석에 앉아있고 해적 철봉은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든 채 무릎 꿇고 있다.

춘섭 (장사정을 가리키며) 송악산 미친 호랑이님이시다!

통나무 의자에 걸터앉은 장사정의 모습이 보인다.
별장시절의 깔끔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호랑이 가죽옷을 걸친 장사정의 모습이 제법 산적스럽다. 장사정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취조하듯 물어본다.

장사정 산적이 되겠다? 여긴 어찌 알고 찾아왔는고?

철봉 벽란도 박모에게 의뢰했더니 여기로 와서 면접을 보면 될거라 일러줬습니다.
장두령께서 워낙 호방하신 분이래 경력도 인정해 줄 것이라며,

장사정 자기소개를 읊어보거라!

철봉 예. 저는 철봉이라 하옵고 해적 생활 십 수 년에 대소 수십 전을 겪으며 안 털어본 상단이 없을 정도로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해적단의 중추로서 고려의 바다를 평정하였으나 뜻한바 있어 산적으로 전향하고자 하오니, 옆에 두고 귀하게 쓰시면 산적사의 한 장을 화려하게 장식할 인재가 되리라 자부합니다. 참고로 꼼짝마! 썰라~ 손들어! 썰라~ 같은 간단한 중국어 구사 가능합니다!

장사정 오~ 그런 인재가 어찌 바다를 등졌는고?
 철봉 (당황) 그... 그게 생선이 입맛에 안맞아서... (설레발) 비... 비린내가... 육
 고기 체질이거든요~
 장사정 쫓겨났냐?
 철봉 (당황한다) 예? 아, 아뇨? 안 쫓겨났는데요. 참~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장사정 쫓겨났구만
 철봉 (흥분한다) 그게 아니고, 그, 저, 뭐랄까, 제가 원래 꿈이 산적인데, 남자는
 만근의 풍상에도 요동 없는 태산과 같고 여자는 가벼운 바람에도 일렁이는 바
 다와 같다, 예? 남자는 산! 여자는 바다!
 장사정 됐다. 좀 들떨어져 보이긴 하다만 오갈 데 없는 신세니 오늘부터 우리 식구로
 받아주겠다. 철봉이 너는 서열 30위로서 주어진 몫을 잘 하도록 해라.
 철봉 서열이 삼십위면.....

위에서부터 쪽 훑어보는 철봉. 제일 막내 산만이 자기 밑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철봉 (어이상실) 아니~ 그래도 제가 경력이 있는데요. 나이도 있고.
 장사정 그럼 다시 바다로 가던지.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철봉, 미적거리며 산만이 아래로 가서 앉는다.
 산만이 아주 흡족한 얼굴로 철봉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산만이 막내야, 밥 해야지?

17. 벽란도, 어느 객점 [낮]

옷차림이며 머리며 엉망이 된 한상질과 백선기, 몇몇 교위들이 앉아있다.
 모두 국밥 한 그릇 씹 받아들고는 있지만 세상을 하직할 듯 절망에 가득 찬 얼굴을 한 채
 수저도 들지 않고 있다.
 문이 벌럭 열리며 정도전이 들어온다. 일제히 바라보는 한상질과 백선기.

한상질 (구원군을 만난듯하다) 이보게 삼보옹!
 정도전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INS> 원덕전

한상질 등이 머리를 조아린 채 울음 섞인 소리로 고한다.

한상질 저언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고래가 국새를 먹었사옵니다.
 이성계 (대노한다) 네 이노움! 고래가 국새를 먹다니, 지금 과인을 능멸하는가? (밖을
 향해) 당장 저것들의 목을 쳐라!

정도전 그리 되지 않겠나.
 한상질 내가 주상이라도 그리 하겠네. 고래가 먹다니. 당채 말이 되는 말이래야 말이

지.

정도전 무슨 일을 그따위로 처리하나.

한상질 그나마 하나는 건졌잖는가. 둘 다 잃고 왔으면 나를 천거한 자네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협박조로) 나랑 같이 죽세!

정도전 (달래듯) 잘 듣게. 민심은 천심이거늘, 이런 괴이한 일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새로운 왕조를 하늘이 허락지 않은 것으로 생각 할 것이야. 허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모두 조선을 위한 것 일세……. 고래 같은 건 없었어. 자네는… 해적의 습격을 받은 것이야.

객점에 걸려있는 커다란 족자,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려있다. 그 뒤에 있는 작은 방에서는 교활한 표정의 박모(40대초)가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엿듣고 있다.

18. 원덕전 - 앞 [낮]

이성계가 맨발로 뛰어나온다. 그 앞에 한상질과 정도전이 들어오는데 후줄근한 옷차림에 불안감이 엄습한다. 한상질이 이성계를 보자마자 울며 앞드린다.

한상질 저언하~ 죽여주시옵소서!

이성계 행색이... 어찌 된 일인가.

한상질 신 예문관 학사 한상질, 명 황제폐하계옵서 하사하신 국호와 국새를 받들어 모시던 중... 고려 잔당으로 보이는 해적의 습격으로 그만... 국새를 강탈당했나이다.

이성계 국새를...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이성계를 대신들이 부축한다.

이성계 그러고도... 그러고도... (소리 지른다)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한상질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국호는 모셔야 하옵기에... (두루마리 내민다) 포악하고 잔악무도한 역적 패당의 공격을 뚫고 지켜냈사옵습니다. 조선이옵니다 전하.

이성계가 두루마리를 펼친다. 조선이란 국호 아래 명 황제의 국새가 찍혀있다.

이성계 이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라시더냐.

한상질 그렇사옵니다.

이성계 (두루마리 내놓고 먼 산 바라본다)...허나 국새는...

한상질 죽여주시옵소서!

정도전 토포를 하셔야 하옵습니다. 산과 바다의 고려 잔당의 씨를 말려야 하옵습니다.

이성계 (엄중하다) 닥치시오. 닥치고... (호흡 고르고) 조선의 이름으로 개국을 선포하고 칙령을 반포하시오. 그리고 전 군을 동원해 산적과 해적을 토벌하고 국새를 되찾아 오시오.

정도전 명 받자옵습니다.

이성계 보름 주겠소. 안 그러면... 경들은 개국 하자마자 참수당하는 개국공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오~

이성계가 냉정하게 돌아선다.

19. 송악산 - 고개 [낮]

울울창창한 숲 속. 제법 넓은 길이 산마루부터 길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척 장도를 등에 멘 장사정이 길 한가운데 서있다.
길을 둘러보는 장사정, 길 한쪽 큰 나무 위에 철봉이가 숨어있고 그 나무와 연결된 밧줄에는 큰 그물이 걸려있다,

INS - 동일 장소 : 상단털이 모의(한시간전 상황)

장사정 (소리)아주 확실한 정보야. 최씨 상단이 귀물을 옮기는데 호위무사래야 기껏 스물이다.

산 너머에서 최씨네 상단이 오고 있다.
짐을 실은 행렬은 장대하고 앞뒤로 십여 명 씩의 호위무사가 포진해 있다.

장사정 (소리)스님이 신호를 주면 모두 준비한다.

상단이 보이자 산마루에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윈다.
목탁 소리와 함께 산길에서 호위무사 행렬이 보인다.

장사정 (소리) 막내야!

철봉이 줄을 끊으면, 그물이 상단 무리와 호위무사들을 덮친다.

장사정 (소리) 다음엔 우리가 확!

장사정과 산적들이 좌우에서 우왕좌왕하는 상단을 덮친다.

장사정이 길게 이어진 산길을 본다.
둔중하게 땅이 울리는 느낌, 바닥에 고인물이 파동에 떨린다.
철봉이 조르르 달려온다.

철봉 두령. 그래도 대소 수십 전을 벌인 전투의 달인인데, 제가 선봉에 서야
장사정 시키는 거나 잘 해라. 대대로 줄 끊는 건 막내의 몫이니.

철봉이 구시렁거리며 돌아선다.

20. 송악산 - 고갯길 이쪽저쪽 [낮]

고개 너머에서 최씨네 대형 상단이 오고 있다.
산마루에서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는 스님. 그 소리가 장사정과 부하들의 귀에 들린다.
칼을 빼들고 밧줄을 자를 준비를 하는 철봉이.....

산마루로 향하던 상단 대열을 정도전 등이 추월하는데, 앞뒤로 호위 군병들이 대단하다. 최씨 상단은 옆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인다. 화면이 부감으로 오르며 정도전, 한상질과 함께 백여 명의 군사가 진군하는 것이 보인다. 정도전 일행에게 함장배례를 하는 스님. 아래쪽에 있는 장사정 쪽으로 몸을 돌려 함장하던 손을 순간순간 X 자로 만들며 멈출 신호를 보낸다.

정도전 행렬이 산을 넘어오고 있다. 장사정은 신호를 알아보고 작전을 중지하라는 뜻으로 자기 손으로 목을 긋는다. 숨어있던 산적들은 조용히 퇴각하는데, 비탈 아래 있던 철봉은 무슨 뜻인지 몰라 가우뚱 한다. 철봉을 보며 손으로 목을 긋는 장사정. 철봉이 드디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철봉 아~ 즐 끊으라고?

그러더니 냅다 줄을 잘라버린다. 길게 연결된 줄이 풀리며 그물이 정도전과 한상질 머리 위로 떨어진다. 호위군 대열은 너무나 황당해서인지 아무 동요도 없다. 장사정이 짐짓 나그네인 척 하며 걸음을 돌려 슬금슬금 도망가는데, 철봉이가 비탈 아래서 산길로 뛰어올라오며 소리를 지른다.

철봉 우와~ 다 죽여라!~

대열로 향하던 철봉이 멈춘다. 으악새가 슬피 운다. 장사정이 후다닥 도망치고, 군병들이 “고려 잔당이다” “죽여라” “잡아라” 등등 소리를 지르며 추격을 시작한다.

21. 송악산 - 산 속 [낮]

정신없이 도망치는 장사정 옆으로 철봉이와 산만이, 춘섭이, 스님 등이 합류한다. 화살은 빗발치듯 날아와 그들을 지나치거나 나무에 박히고,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다. 곳곳에서 산적들이 죽거나 잡힌다.

장사정 이러다 다 죽는다. 흩어져서 산채로 합류하자!

장사정 일행은 뿔뿔이 흩어진다. 뒤따라오던 철봉,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다가, 무작정 장사정을 부르며 따라간다.

철봉 두령! 같이 가요 두령!
O.S 저 놈이 두령이다!

군병들이 알아차렸다. 장사정 쪽으로 엄청난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한다.

장사정 가! 가라고! 가버려!
철봉 두령~

떨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철봉, 그 뒤로 주력군이 추격해온다.

22. 산 속 [밤]

장사정 일행이 모여있다.

병력은 열 명 정도를 잃었고 모두 지치고 다친 기색들이 역력하다.

춘섭 상단 두 번 털었다간 이성계도 만나겠소.
산만이 그러게 그 놈 정보는 믿지 말라니까요. 지나는 사람들 붓짐이나 털어먹자니까.
스님 후퇴하라고 그렇게 신호를 줘도, 도대체 왜 그런거요?

장사정이 철봉을 노려본다.

철봉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낙서를 하며 탄성을 부린다.

장사정 다음엔 잘 되겠지. 호랑이가 토끼 사냥을 나갔다 한들 매번 성공이야 할 수 있
 느냐.
춘섭 한 번은 성공 하겠죠, 한 번은. 우린 뭐 하나 제대로 털어먹지도 못하고 맨날
 플뿌리 캐먹고, 멧돼지 잡아먹고, 심마니야 사냥꾼이야.
장사정 다 괜찮다. 관군들 추격이야 뻔하지 않더냐. 시늉만 하다가 해 떨어지면 집으
 로 도망가는 것들이니.
O.S 관군이다!

느닷없는 산적 하나의 외침 소리에 벌떡 일어나보면,
산허리를 둘러 햇불을 든 수백의 군사들이 올라오고 있다.

철봉 에이 씨, 괜히 산으로 와서...

빗발치는 화살을 피해 산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23. 정도전의 집 - 후원 정자 [밤]

정도전과 한상질이 조출한 술상을 받아들고 있다.

한상질 팔도의 산적과 해적들에 소탕령은 내렸으나 시간 끌기로는 태부족이야.
정도전 (답답) 그러게 애초에 왜 국새를!... (더 할 말이 없다) 찾아야지.
한상질 그걸 누가 찾겠나. 인재는 많으나 목숨 걸 인물이 없네. 다들 우리가 죽으면
 치고 올라올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정도전 우릴 위해 목숨 걸 인물이라.....
한상질 (눈치 챘다) 있겠나?

정도전이 어디에 생각이 닿았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24. 감옥 [밤]

차가운 석벽으로 막힌 감옥, 높이 난 창으로는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다.
바닥에 깔린 지푸라기는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에 젖었고,
굶주려 살 빠진 쥐들이 힘없이 돌아다닌다.
석벽 아래 머리가 길어 허리까지 산발을 한 죄수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잠시 후, 정도전과 한상질이 창살 앞에 선다.
한상질은 역한 냄새를 참기 힘든 듯 코를 막고 있다.

한상질 아직 안 죽었나?

천천히 고개를 드는 죄수, 한 쪽 눈을 잃은 모흥갑이다.

정도전 살고 싶나?

답답하게 물어보는 정도전. 모흥갑의 하나 남은 눈이 점점 커진다.

25. 기루 [밤]

절을 올리고 바로 앉는 모흥갑.
몸단장하고 머리를 정리하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는데,
없어진 한쪽 눈으로 인상은 험해 보인다.

정도전 자네가 거느리던 부하가 주상을 해하려 했다지. 개국공신을 눈앞에 두고 역적이 되었구나.

INS - 위화도

장사정이 던진 칼이 이성계의 어깨에 박힌다.

그때 일이 다시 떠오르는 듯 이를 악무는 모흥갑

모흥갑 고래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정도전 배를 가르고 국새를 꺼내게. 그리하면 진정한 개국공신이 되는 것이야. 새 나라 조선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 허나, 실패한다면 지옥을 맛보게 되겠지.

모흥갑 이미 지옥 맛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절세미녀 기생들이 들어와 모흥갑의 좌우로 앉는다.

정도전 임시이긴 하지만 수군통사 직책을 주겠네. 오늘은 쌓인 독을 풀고 아침 일찍 내려가게.

모흥갑 한시가 급하다 들었습니다.

모흥갑이 예를 올리고 나간다. 한상질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한상질 진정 믿을만한 인물인가?
정도전 저자를 믿는 것이 아니네. 다만 그의 욕망을 믿는 거지.

26. 송악산 - 장사정 산채 [낮]

도주와 굶주림으로 지친 산적들, 아무데나 널브러져 침뿌리를 뜯어먹고 있다.
이제 숫자는 열댓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춘섭 어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몇날 며칠을 쫓아다녀?
스님 토포령이라도 내렸나?
춘섭 어이 중, 그렇게도 못 깨달아? 나라 이름도 못정하고 빌빌대는데 토포령 내릴
정신이나 있겠어?
산만 벽란도 한 번 가 봐야 되는 거 아뇨? 상황을 알아야 도망을 가던 싸우던 할 거
아뇨.
스님 내 한번 내려갔다 올까? 정보도 얻을 겸 시주도 할 겸 해서.
장사정 너무 염려들 말아라. 토포령이 내렸다 한들 고려에 산봉우리가 한둘이고 산채
가 서너 개 뿐이더냐. 수 만 아니라 수백만 토포군이 와도 우리 산채를 찾지는
못할 것이다.
철봉(0.S) 토포군이다~

놀라 일어서는 산적들.
멀리서 철봉이가 죽어라 뛰어오고, 그 뒤를 따라 토포군이 까맣게 산을 덮으며 올라온다.
완전무장을 한 정예 군병들이고, <조선> <토포사 평안부사 임억삼> 등 깃발도 장엄하다.

장사정 저거 아주 군사를 끌구 다녀 저거.
철봉 두령님 피하세요 ~
토포장 저 놈이 두령이다!

장사정이 욕을 삼키며 다시 도망가기 시작한다.

27. 바다 [낮]

십 수 미터 길이로 자란 미역들이 조류에 흔들린다.
어미는 미역을 먹고, 새끼고래는 어미의 젖을 물고 있다.
깃대가 박힌 등에서는 피가 몽글거리고,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다가온다.
위압적으로 몸을 돌리는 고래, 상어가 도망치듯 하다가 다시 주위를 맴돈다.
고래를 주시하는 상어의 눈이 위협스럽다.

28. 수군진 근해 [낮]

조선 깃발을 단 군선과 해적선이 맞닿아 있다.
관선 사령탑에 여월과 모흥갑이 마주앉아있고 용갑이와 오만호가 둘의 뒤에 서있다.
군복을 입은 모흥갑에게서는 서늘한 기운이 풍긴다.

여월 새로 오신 분인가, (오만호에게) 상납은 그만하면 충분치 않던가요?
 모홍갑 니년이 해적단주 여월이나.
 여월 예. 이 년이 그년이옵지요.
 오만호 통사님이시다. 공손해라.
 여월 통사님께서 이 험한 바다까지 어인 일이신지요?
 모홍갑 귀신고래. 길이가 십여 장은 족히 나가고 (깃발 가리킨다) 무엄하게도 등에 저
 깃발을 달고 다니지. 그 고래를 잡아오너라. 배는 내가 가를 터이니.
 여월 고래 배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러시오?
 모홍갑 불필요한 호기심은 명을 재촉하느니라! 시키는대로 잡아오거나 하거라!
 여월 이년은 어부가 아닙니다. 게다가 고래사냥이라니요. 귀신고래는 용왕님이 보낸
 사자이며 죽일 놈 살릴 놈 구분하는 영물입니다.
 모홍갑 거절하는 건 너의 자유다. 대신 나는 해적을 멸하라는 어명을 따른다.
 여월 저희를 쉽게 잡아들일 수 있겠나이까?
 모홍갑 쉽지 않겠지, 허나 난 너희의 일가족을 찾아내 노소를 불문하고 도륙하고 너희
 들에게 물 한모금, 쌀 한 톨이라도 도와준 마을을 찾아 불을 지르고 모두 역물
 에 묶어 참할 것이다. 니 년이 잡힐 때까지 니 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니
 년을 아는 모든 자들의 목을 쳐 까마귀가 눈알을 파먹도록 할 것이다. 백 명이
 건, 천 명이건.

모홍갑의 협박에 여월의 뒤에 있던 해적무리들이 동요를 일으킨다.

여월 (이를 악물며) ...이러는 이유가 뭘니까.
 모홍갑 우리 수군도 고래잡이에 나설 것이다. 허나 군선은 평저선이라 풍랑에는 강하
 나 속도가 나질 않는다. 고래를 찾는다 해도 따라잡기 힘들다. 너희가 명을 따
 른다면 당분간 살 길은 열어주겠다.
 여월
 모홍갑 열흘 주겠다.
 여월 ... 이것이 통사님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거래요.

여월이 일어선다.

29. 황해 - 해적선 / 낮

선수로 가는 여월을 용갑, 참복, 흑묘가 따라간다.

흑묘 외눈깔 저거 관상이 딱 우리 잡아먹을 상이에요 언니. 먼저 치시죠.
 참복 너는 뭘 맨날 치재! 암것도 모르는 게!
 흑묘 왜! 내가 단주님 오른팔인데.
 용갑 (여월에게) 어찌시렵니까.
 여월 관군이다. 들어줄건 들어주고 내줄 건 내줘야지.
 용갑 화포도 없이 고래를 뭇로 잡게요. 그물을 칩니까 낚시를 합니까.
 여월 벽란도로 간다.
 용갑 거긴 왜요?
 여월 화포 사러.

여월이 고개를 돌려 작은 단 위에 모셔진 불상을 바라본다.

30. 벽란도 풍경 [낮]

수목화로 그려진 장사정과 여월의 용모과기가 나란히 붙어있다.
카메라 서서히 뒤로 빠지면 고려 최대의 무역항이었던 벽란도의 모습이 펼쳐진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상선에는 해동 고려 깃발과 함께 평양, 개성, 송도 등 상단 깃발이 달려
있고 항구에는 고려인, 중국인, 서양인, 아랍인 등과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사람들이 각자의
고유 의상을 입고 자기네들 언어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넘치는 사람만큼 기찰을 도는 군병들의 기세도 위엄 있다.
군병 무리가 지나가자 터번을 쓰고 얼굴을 가린 아랍 상인 둘이 고개를 든다.
상인으로 위장한 장사정과 스님이다.
장사정 일행이 상점 거리 쪽으로 향하고, 뒤를 따라 여월과 용갑, 참복, 흑묘 등이 보인다.
훔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한 듯 해적들이 등짐을 지고 걸어오고 있다.

31. 벽란도 - 기방 안 [낮]

화려한 기루로 들어서서 장사정과 스님.
내실로 보이는 문 앞에 보디가드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장사정을 막아선다.
씨익 웃으며 덩치를 한방에 기절시키는 장사정.
장사정이 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술상을 차리고 기너를 무릎에 앉히고 히히덕거리던 박모가 화들짝 놀라 기너를 밀어제친다.

장사정 쫓기는..

스님은 상위에 차려진 산해진미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술병을 들고 허겁지겁 먹고 마시기 시작한다. 장사정이 기너처럼 박모 무릎에 앉아 술병을 들어 마신다.

박모 장별장,
장사정 별장은 무슨. 산사람 된지가 얼마데.
박모 얼핏 소문은 들었네만, 아주 우연히 군병들과 마주쳤다고.
장사정 우연... 자네 말만 믿고 최씨네 상단을 기다렸는데 어찌 군병이 왔을까. 내가 죽기를 바랬던가?
박모 허허! 이 사람이 농을 진처럼 던지네 그려, 하하하...
장사정 (입 벌린다) 아~ (박모가 집어준 안주를 받아먹고는) 자네가 군병의 이동을 몰랐을 리는 없고... 왜 날 죽이려 했을까?

32. 벽란도 - 기방 뒤뜰 [낮]

박모가 거꾸로 매달려 장독대에 박혀 있다.
스님이 줄을 당기면 장독대에서 몸이 빠져나온다. 물고문이다.

박모 파~ (헉헉) 지, 진짜 우연일세. 나를 모르나 장별장!

스님이 줄을 풀면 박모가 다시 장독대에 박힌다.
한참을 그러다 줄을 올리면 박모의 기세가 많이 누그러졌다.

박모 (헉헉) 파, 팔자 바꿀, 기막힌 정보가 있네. 네 비단 서른 필에 드림세. 응?
스님 자비심이 바닥나는구나.

스님이 줄을 조금 풀면 박모의 머리가 물로 향한다.

박모 스무필! (줄을 더 풀면) 열필! (또 줄을 풀면) 공짜, 공짜, 거저 주겠네, 콩으로!

CUT TO

장사정의 표정이 심각하다. 매달린 채 장사정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박모

박모 고래라니까! 황제가 내린 금은보화가 산더미 같은데
장사정 그걸 먹었다고? 물고기가?
박모 그렇다니까! 고래가 그냥 한 입에 꿀꺽!
스님 이런 씨, 반야바라밀! (줄을 푼다)
박모 (급하다) 그 안에 국새가르르르르... (물에 잠겼다)

국새 이야기를 듣자 장사정 표정이 달라진다. 장사정이 눈짓하자 스님이 줄을 당긴다.

장사정 국새? (박모는 기침만 하고)국새라고?

박모가 대답을 하려는데, 화살이 날아와 밧줄을 끊으며 박모가 다시 장독대에 빠진다.
다시 날아온 화살이 장독대를 깨고, 물이 쏟아지며 박모가 땅바닥에 뒹군다.
돌아보면 연노를 든 여월이 해적단을 거느리고 들어오고 있다.
보기 드문 미인이다. 장사정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여월을 훑어본다.

장사정 계집 배짱이 제법 지존이구나. 사내들 거래 트는데 살을 먼저 날리고.
여월 (주위를 둘러본다) 어디 사내가 있나. 비루먹은 똥개 두 마리랑 늙은 승냥이 하나 뿐 인데.

말대거리 하는 숨씨가 남다르다. 장사장이 제법 흥미로워 헛웃음을 짓는다.

장사정 어느 골에 굴러먹는 계집인지 미색보다 혀가 반지르르, (여월이 무시하고 지나가자) 야! 말 하잖아 지금!

여월의 어깨를 잡는 장사정. 여월이 순간 몸을 돌려 공격을 하고 장사정이 방어를 한다.

순식간에 몇 합이 교차되고, 장사정이 공격을 하려는 순간 흑묘의 연노가 발사된다. 몸을 피하는 장사정. 사타구니로 겨드랑이로 화살이 지나간다. 스님이 공격을 하려다가 연노가 겨눠지니 동작을 멈추고 인자한 미소로 합장을 한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흑묘.

장사정 인사나 트세. 난 그 이름만 들어도 울던 애기가 더 경기를 일으킨다는 송악산 미친 호랑일세.

여월 호랑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친 것은 확실하구나! 가서 나물이나 뜯어 먹거라.

여월은 상대도 안 해주고 지나쳐 박모를 일으킨다. 장사정 기가차서 헛웃음만 나오는데,

흑묘 어디서 실실 조개고 지랄이야, 대가리를 확 이동분해버릴라!

눈을 부라리는 흑묘. 장사정은 꼬마의 욕에 황당해 머리를 쥐어박으려는데 용갑이와 참복이 등 해적들 눈빛이 심상찮다. 장사정이 웃음을 그치고 도망치듯 발길을 돌린다.

33. 벽란도 - 박모의 창고 [낮]

커다란 창고 안에는 온갖 귀물들이 쌓여있다.

벽의 끝자락에 뚫려있는 높은 창문의 창살너머로 장사정의 얼굴이 쭈~욱 올라온다.

큰 탁자에 박모와 여월이 앉아있다. 밖에서는 장사정이 스님의 어깨위에 무등을 타고 그들의 얘기를 엿듣는다.

박모 대토벌령이 떨어졌는데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여월이 묘한 눈웃음을 지으며 손짓을 한다. 참복이 탁자에 상자를 올리고 뚜껑을 열어준다. 상갑판에 모셔두었던 애기 황금불상이 들어있다.

여월 (불상 눈짓하며) 인사 올리세요.

박모 어이구, 관세음보살~

여월 아랍과 구라파 상인을 통해 새로운 화포와 병장기들이 들어온다지요?

박모 화포와 병장기라, 왜? 고래라도 잡으시렵니까?

창문을 통해 엿듣던 장사정이 고래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박모 이 박모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고래가 국새를 삼켰다니 이런 불길한 일이...

박모의 얘기에 관군들이 고래를 찾는 이유를 알게 되는 여월, 고개를 끄덕인다.

여월 구할 수 있겠어요?

박모 제가 못 구하는 물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물건.

여월 (상자 뚜껑 닫는다) 내일 올게요.

박모 근데 가격이 맞으려나 싶어서. 새로 들어선 나라는 이름도 없고 왕이 왕도 아닌 게 아주 심난합니다. 그 왕이 불교를 깔아뭉개단 소문도 파다하고, 요즘은 부처님 값이 아주 똥값입니다, 허허허.

여월 부처님으로 보이시나봐요. 내 눈엔 그냥 금덩이로 보이는데.

박모 금값이라는 것도 나라가 뒤숭숭해지면서

여월 (단호하게 말 자른다) 보세요 그대를 먹여 살리는 건 나라가 아니라 바다예요. 그 바다의 주인은 우리고.

박모 (한 풀 누그러진다) 반은 옳은 말이고 반은 맞는 말이긴 한데…….

여월 내일까지요.

박모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어서는 여월. 그녀도 거래에 있어서는 녹록치 않다.

34. 송악산 - 버려진 상황당 터 [낮]

춘섭 등 겨우 살아남은 산적 10여 명이 퍼질러있고 철봉이는 토끼를 굶고 있다. 불쌍하고 추레한 몰골들을 보며 철봉이가 은근 무시한다.

철봉 하이구, 산적들 참 대단하셔. 입산 며칠 만에 서열 30위에서, 몇 위여 지금, (숫자세고) 10위? 사나흘 더 있으면 서열 2위도 해먹겠어.

산만이 막내야, 토끼탄다.

철봉 그 언제냐, 한 이삼년 됐나 삼사년 됐나, 망망대해에서 수군 배 120척이랑 딱 맞붙었어요, 우리가!

산만이 토끼 탄다고~

철봉 백 이십 대 일! 도망갔냐? (비웃는다) 해적은 그런 거 없거든. 회오리치는 물길과 만근 파도를 형제삼아 수군들을 무찌르며,

산만이가 날아차기로 철봉을 날려버린다.

산만이 토끼 다 타잖아!

싸움이라도 벌일 듯 발딱 일어서는 철봉. 하지만 덩치 차이가 너무 난다.

철봉 많이 안 탔어요…….

철봉이가 슬쩍 꼬리를 내리고 다시 토끼를 굶는다.
그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자 일제히 방어 자세를 취하는 산적들.
수풀을 헤치고 나온 사람은 스님과 장사정이다.

CUT TO

산적들이 둥글게 모여 토끼 고기를 나눠먹고 있다.

장사정 나를 따라 나와 모두들 고생이 이만저만이다. 따순 밥에 고깃국은 못 먹여도 술은 끊이지 않게 대주겠다는 약속도 못 지켰다.

춘섭 (짐 챙긴다)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장사정 그래서 하는 말인데... (땀을 흘리다 피식 웃으며) 허! 아니다.
 춘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진즉에 바라던 바고.
 산만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춘섭과 산만을 따라 모든 산적들이 일어나고, 철봉은 어찌해야할지 몰라 눈치만 본다.

장사정 왜? 무슨 날?
 춘섭 그만 해체하고 각자 갈 길 가자 그거 아뇨?
 장사정 아닌데?
 춘섭 아니나 기나 서로 너무 오래 붙어 있었어요.
 산만 나도 태백산 오두령이 한술밥 먹자 부른지가 한참이고.
 장사정 (다급해 부하들 말린다)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보면,
 춘섭 들어봐야 답이나 나오나. (스님에게) 어이 스! 자네도 그만 결정 해. 머리 더
 기르고 속세로 돌아가던지, 머리 더 깎고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던지.
 장사정 애기 좀 들어보라니까!
 산만 두령, 만수무강하십쇼!
 춘섭 (산적들에게) 가자고들!
 장사정 금은보화가 가득 실린 배가 한 척 있는데!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장사정, 사방으로 흩어지던 산적들이 우뚝 걸음을 멈춘다.

장사정 ...배가 있었어... 금은보화.

말을 아끼는 장사정. 춘섭 이하 모두 은근슬쩍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장사정 아주 믿을만한 정본데... 믿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춘섭 그 배가, 뭐요?
 장사정 명나라 황제가 배 한 척에 금은보화를 가득 실어 보냈는데...
 춘섭 ...보냈는데?
 장사정 엄청 큰 배겠지? 근데 그 배를...(차마 말을 못하고) 허허허...
 춘섭 답답해 죽겠네, 빨리 말해보슈!
 스님 (보다 못해) 그 배를 물고기가 꿀떡 삼켰단다.
 춘섭 이런 쌍!

춘섭이가 앉은 자세에서 몸을 날려 스님을 찬다. 목탁을 빼앗아 스님을 때리며,

춘섭 중 생활 그만큼 해잡랐으면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냐! 어디 두
 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개소리를, 응? 물고기가 배를 삼켜? 꿀떡? 꿀
 떡? 아나 꿀떡! (때리기를 그치고 혈떡거리며) 말씀하십쇼 두령. 금은보화가
 가득 실린 배가 어찌 됐다고요?
 장사정 (춘섭의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난다.) 음... 그 배를... 물고기가 꿀떡 삼켰
 단다.

정적... 부엉이가 운다.

춘섭이가 한숨을 푹쉬고, 들고 있던 목탁으로 산만이 뒤통수를 갈기며

춘섭 토끼 다 닳잖아. 막내를 가르친 거야 뭐야? 윗놈이나 아랫놈이나 아주 흐리멍 텅해가지고 윗놈이라고 있는 게 사리판단을 잘하길 해? 특하면 개소리나 지껄이고...내가 화병으로 뒤통지었다.

장사정 너 지금 내 얘기 하는거냐?

산만이 (커다란 바위 불끈 들고 철봉에게 간다)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 산적이 토끼를 태워?

철봉 잠깐잠깐잠깐!... 거 혹시 고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만이 고래? (머리 위로 바위를 불끈 올리는데)

장사정 잠깐! (산만이 멈추면) 니가 고래를 아나?

CUT TO

산적들이 다시 오밀조밀 모여있다.

철봉 사행선이 뽀개졌다... 그렇다면 귀신고래밖에 없습니다.

장사정 그렇지? 배를 꿀떡 삼킨 건 아니고, 뽀개지니까 떨어지는 거 몇 개 주워 먹었을 수도 있잖아? 국새나 뭐 그런 거.

춘섭 국새요?

장사정 고래가 국새를 먹어서 이성계가 똥줄이 탔단다. 그 고래만 잡아오면 엄청난 금은보화도 주고, 죄가 있는 놈은 죄도 사해주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춘섭 (못 민겠다) 그래서, 고래만 잡으면 팔자가 편다 그겁니까?

장사정 평생 노나는 거지.

산만 두령? 지금 송악산을 뜨자는거유?

장사정 그래~ 이제 고려도 망한 마당에 언제까지 산에 숨어 살거야? 혼사도 올리고 자식농사도 짓고 좀 번듯하게 살아봐야 하잖겠어?

진지하게 설득하는 장사정. 산적 무리들 슬슬 장사정의 설레발에 반쯤 넘어온 표정이다.

춘섭 고래 그거... (철봉이 본다) 낚시로 잡나 그물로 잡나.

철봉 못 잡습니다.

산만이 왜?

철봉 너무 커요.

산만이 지가 아무리 커봐야 물고기지.

장사정 생선, 생선.

철봉 (비웃는다) 기와집보다 더 큰 생선 보셨습니까?

장사정 누구나 집채만 한 호랑이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만한 한 호랑이는 없다. 두려움이 클수록 상대는 더 커 보이는 법이야.

산만이 (철봉에게) 생선이 아무리 커봤자 황소만 하겠어. 그러 봐라.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알아야 잡지.

철봉,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나뭇가지 들고 일어선다.

철봉 똑같이 그릴테니 놀라지들 마십쇼.

철봉이 나뭇가지를 들고 공터가 짝 차도록 동그라미를 그린다. 모두 뭔가 싶어 바라보면,

춘섭 뭐여?
철봉 이게 바로 고래 눈동자입니다.
산만이 이런 씨!

산만이가 날아차기로 철봉이를 날려버린다.
장사정을 비롯한 산적들은 킬킬 웃으며 철봉이를 바라본다.

철봉 진짜라니까요. 눈알이 이만하다니까요.
장사정 그래, 눈깔이 그만하면 이빨은 또 얼마나 클까?
철봉 고래는 이빨이 없어요. 대신 수염으로 먹이를 먹습죠
장사정 (모두들 웃고) 그래, 그래, 수염으로 먹이를 씹는다, 하하하...
 (정색) 원소리 그만하고 어찌 잡는지나 말해보거라
철봉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숨 쉴라고 물 위로 떠올랐을 때 화포로 날려버
 려야지요.
춘섭 ...물고기가 물 밖에서 숨을 쉰다고?
스님 (참는다) 나무관세음...
장사정 물고기가 그럴 거면 물에 살면 안되지.
철봉 그 놈이 원래 그렇습니다. 물에 짝 떠올라서 숨을 한 번 내쉬면 이쪽에 있는
 코에서 물줄기가 푸악! 하고 솟아오릅죠.
춘섭 ...코가 등에 달렸다고?
철봉 예!

목탁을 던지는 스님, 철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는다.

스님 불자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느니라. 이놈 잘 하면 물고기가 새끼 낳고 젖도 먹
 인다고 할 놈이구나!
철봉 (화났다) 당연하죠! 새끼 낳고 젖 먹일 때는 미역도 뜯어먹는다니까.
장사정 네 이놈! 재밌다 재밌다 했더니.. 물고기가 새끼를 낳으면, 그럼 호랑이는 알
 을 낳는단 말이나.
철봉 촌구석에서만 살아서 모르시나 본데, 바다는 말입니다...상상을 할 수가 없어
 요. 거 뭐냐, 날개 달린 물고기. 애들이 짝 뛰어올라서 날개 추악~ (물고기 지
 나가는 흥내) 그냥 속속속속속! 예? 대가리에 햇불 달린 물고기 아시나? (머리
 에 달린 촉수 흥내내면) 마빡에서 불 짝~ 용오름! 들어는 봤나? (제풀에 신나
 점점 동작이 커진다) 에이, 산적 나부랭이들은 그런 거 모르지! 바다가 한 번
 승질을 내면 (두 팔 벌려) 어마어마한 물기둥이 후와와~악! 아주 그냥 구름 뚫
 고 하늘까지, 응? 이야! 그러면 물고기가 소나기처럼 후두두두...

말을 멈추는 철봉. 장사정이 2척 장도를 철봉의 목에 겨누고 있다.
산적들 모두 굳은 얼굴로 철봉을 바라보고 있다. 한 마디만 더 하면 진짜 죽일 것 같다.

장사정 재단은 그만이다. 화포 한 방이면 잡을 수 있다는 말이나.
철봉 ...열댓 방은 쏘야

장사정이 장도 옆면으로 철봉의 뺨을 때린다.

장사정 가자! 화포 구하러.

35. 벽란도 - 박모의 창고 앞마당 [낮]

마당에 물건을 실기 위한 수레가 서너개 놓여있고 참복이와 해적 1, 2가 지키고 있다.

36. 벽란도 - 박모의 창고 [낮]

창고 안으로 들어가 층층이 쌓여있는 께짝을 밀면 통째로 돌아가며 비밀 입구가 보인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토굴이 있고, 선반과 탁자에 연노와 화포와 주화⁸⁾ 등 각종 무기
들이 진열되어 있다.

여월과 용갑이, 흑묘를 앞에 두고 신나서 떠드는 박모.

박모 이놈이 똥 싸던 힘까지 보태 구한 물건들입니다.
(어깨에 걸 수 있게 끈이 달린 화포 들어 보인다) 이놈은 휴대가 간편하고 사
용이 용이하게 만든 휴대용 화포 되시겠습니까.
(주화 두드리며) 이 분은 무기 중에 왕, 주화라고 합니다. 화약을 많이 먹어
탈이지 이천 보 밖에서 솔방울도 맞출 정도로 기가 막힌 양반입니다.
(수류탄처럼 생긴 것을 들어 보이며) 이건 해무탄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터뜨
리면 사망 수십 보가 바다 안개처럼 자욱하고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한다~

여월이 지푸라기에 쌓여 주둥이만 보이는 한 뺨 정도 크기의 호리병에 시선을 준다.

박모 역시 물건 보는 눈에 자가 있습니다. 아라사에서 구라파를 거쳐 명을 지나 수
역리 길을 걸어온 놈입니다.

박모가 한 병 꺼내 탁자위에 올려놓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호리병이다.

박모 수류병⁹⁾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물로 된 유황이 담겨있지요. 위험 천만 하
기 끝장을 달리는데, (사람들에게 손짓하며) 뒤로.. 뒤로... 병이 깨지는 순
간, 폭발이 일어나지요.

토굴 깊은 곳으로 수류병을 던지는 박모. 거대한 폭음과 함께 화염이 솟구친다.

여월 (흡족한 표정) 모두 실어라.

8) 주화 : 연발로 발사되는 현재의 로켓포와 같은 무기

9) 水硫瓶

37. 벽란도, 박모의 창고 앞마당 [낮]

용갑이와 참복이, 해적들이 무기를 수레에 싣는다. 꽤 많은 양의 무기들이 수레에 가득 찼다. 마지막으로 수류병 상자를 싣고 앞을 보면 장사정이 수레 앞에서 그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 용갑이와 시선이 마주치는 장사정, 씨익 웃는다!
용갑이 등 해적들 뒤로 춘섭이, 산만이 등 산적들이 스윽 나타난다.

CUT TO

창고 밖으로 나오던 여월이 멈칫한다. 수레는 없어졌고 용갑이와 해적들은 쓰러졌다.

흑묘 오라버니, 오라버니.

흑묘가 놀라 그들을 흔들고, 여월은 침착하게 코 밑에 손을 대 생사를 확인한다.
다행히 죽지는 않아 불을 때려 깨우는 여월.
천천히 눈을 뜨는 용갑이... 그러다 놀라 일어난다.

여월 어찌 된 일이나? 수레는?

용갑 뒤통수가 번쩍 하더니...(두리번거리며) 수레! 그 송악산 미친 호랭이..

여월 (흑묘에게) 돌봐라.

짧게 명령하고 답을 넘어 사라지는 여월.

38. 벽란도 - 상점거리 : 추격전 [낮]

장사정

장사정과 춘섭, 산만이와 스님 등 산적들이 각각 짝을 이뤄 수레를 맡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도망을 치고 있다. 수레 안에는 무기가 가득하고, 아무렇게나 없어놓은 수류병이 흔들리고 있다. 터지면 다 죽는다.

장사정 일단 흩어졌다. 다시 만나자~

장사정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빠지는 산만이와 스님.

여월

지붕 위로 올라서는 여월. 한 눈에 벽란도 거리가 내려다보인다.

주변을 살펴보면, 한참 아래쪽에 수레를 끌고 가는 장사정의 모습이 보인다.

뛰어서 쫓기엔 너무 먼 거리다.

여월의 시선이 수로에 닿는다.

산 중턱 계곡에서 항구 초입 물레방아까지 연결된 긴 수로가 마치 고가도로처럼 벽란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여월이 지붕을 타넘으며 수로 쪽으로 뛰어간다.

장사정

일행은 걸음을 서두르다 좌판을 휩쓸고 지나간다.

일대 소란이 일고, 주위에 있던 기찰 군병들이 바라본다.

기찰 멈춰라. 멈추거라!

기찰군병이 쫓아오자 장사정 일행은 오히려 더 속도를 올린다.
기찰군병도 빨피리를 불며 동료들에게 적경을 알린다.
주위에 있던 군병들이 합세해 장사정을 추격하기 시작한다.
기찰병과 장사정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데,

여월

지붕과 지붕을 타고 뛰어가는 여월, 마지막 지붕 위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더니 아슬아슬하게 수로에 착지한다.
미끄럼틀을 타듯 수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여월.
멀리 장사정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반복하며 둘 사이의 거리도 빠르게 줄어든다.
연노를 꺼내는 여월, 장사정을 향해 쏘기 시작한다.

장사정

도망가는 장사정 앞으로 거대한 물레방아가 보인다.
추격하는 기찰병을 따돌리려 더욱 속도를 올리는 장사정, 그 때 연노 화살이 날아와 아슬아슬하게 수류병을 피해 수레 여기저기에 박힌다.
뒤를 돌아보는 장사정과 춘섭, 멀리 수로 쪽에서 연노가 빗발처럼 날아들고 있다.

장사정 춘섭아!

수레를 밀던 춘섭이 점프를 해서 수레에 올라탄다.
그 바람에 앞이 들리며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내려앉는 장사정.
수레에 올라 탄 춘섭이 화포를 들어 여월을 조준한다.
심지는 타들어가고, 화포 사선에 여월이 걸려있다.
귀를 찢을 듯 한 폭음과 함께 화포가 발사된다.
그런데, 거꾸로 들었다. 포탄은 여월이 아니라 장사정 머리 위를 지나가 물레방아에 맞고,
춘섭은 반동으로 멀찌감치 수레 밖으로 날아간다.
장사정은 마구잡이로 욕을 주어 담고, 화포에 맞은 물레방아는 이 빠진 접시 모양이 되어 방아틀에서 빠져나와 내리막길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한다.

여월

연노를 쏘던 여월이 놀란 얼굴이 된다.
아래 쪽, 물레방아 틀이 무너지며 수로가 주저앉고 있다.
수로가 출렁이며 화포와 주화 등이 떨어진다.

장사정

장사정을 뒤쫓던 기찰병들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수레를 거의 따라잡는다.
장사정을 잡는가 싶었는데 비명을 지르며 장사정을 추월해 앞서나간다.
아무도 장사정을 잡으려는 사람이 없다.

기찰병이 지나가자 천천히 수레를 멈추는 장사정,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면 커다란 물레방아가 집어삼킬 듯 굴러오고 있다.

갈리면 죽는다. 장사정이 비명을 지르며 수레를 끌고 뛰기 시작한다.

장사정, 여월

무너진 수로 쪽에 다다른 여월, 몸을 일으켜 점프를 한다.

하늘 끝으로 날아가듯 높이 솟아오르는 여월... 장사정의 수레에 착지를 한다.

장사정은 반동으로 튕겨 올랐다가 수레에 떨어진다.

여월이 분노한 얼굴로 장사정을 내려다보고 있다..

장사정 반갑소 남자. 나 송악산 호랑이...

다짜고짜 장사정에게 칼을 휘두르는 여월, 장사정도 할 수없이 장도를 빼들어 막는다.

여월 (내려치며) 니놈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장사정 (막으며) 잠깐 빌렸다가 돌려주려고 했소!

장사정의 장도와 여월의 쌍검이 어지럽게 부딪치면서도 수레는 내리막길을 달리는 중이다. 수류병 하나가 상자에서 빠져나와 수레 바닥을 구른다.

여월 이게 빌리는 것이냐? 이 뻔뻔한 도둑놈!

장사정 도둑? 그대나 나나 그런 말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좁은 수레 위에서 둘의 결투가 시작된다.

운전수를 잃은 수레는 제멋대로 아래로 굴러가고, 둘의 싸움은 치열하다.

상자에서 빠져나온 수류병 하나가 여월과 장사정의 발에 번갈아 차이며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화포 몇 개가 수레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가속력이 붙은 물레방아가 둘을 덮칠 듯 굴러온다.

점점 거리가 줄어들며 드디어 수레를 덮치는 물레방아.

놀란 장사정이 갑자기 여월을 끌어안으며 몸을 숙인다. 여월도 놀라 장사정을 안고 있는데, 다행이도 화포에 맞아 이가 나간 물레방아 틈으로 통과하는 수레.

안도하는 장사정과 여월.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 앞에는 코너길이 나타난다. 방향을 틀지 못하면 그대로 수십미터 아래로 떨어질 판이다. 비명을 지르는 장사정과 여월.

수레는 결국 달리던 탄력 그대로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스키 점프를 하듯 공중을 날아오르는 장사정과 여월이 탄 수레.

39. 벽란도 - 시장 [낮]

공중으로 뚫던 수레는 포물선을 그리며 아래로 향한다.

아래에는 수많은 노점들이 모여있는 난전이 펼쳐져 있다.

노점이 펼쳐놓은 천막위로 떨어지는 수레.

천막을 뚫고 또 뚫고 시장을 난장판을 만들며 멈춰선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꼭 껴안고 있는 장사정과 여월. 정신을 차린 여월 장사정을 다시 공격

한다.

여월 이 미친 호랑이 새끼!

검을 들어 장사정을 공격하려는데, 장사정이 검을 놓고 두 손을 번쩍 든다. 항복이다. 여월은 분이 삭지 않아 그를 죽일 듯 하는데, 장사정이 뒤를 보라 눈짓한다.

여월 뭐?
장사정 뒤, 뒤!

장사정을 못 믿는 여월은 돌아보지 않는다. 대신, 검 날을 백미러처럼 활용해 뒤를 본다. 여월 뒤쪽, 기찰병들이 새까맣게 모여 활을 겨누고 있다. 돌아보는 여월... 피할 곳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여월은 항복을 모른다. 과감하게 화포를 집어드는 순간,

기찰군관 썩라!

일제히 시위를 놓는 기찰병들. 새까맣게 날아오는 화살들... 화포를 쏘기도 전에 죽었다 싶었는데, 어느새 번개같이 장사정이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린다. 장사정의 등에 사정없이 박히는 화살들... 장사정을 바라보는 여월

여월 죽었느냐?
장사정 (눈을 뜨며) 으~ 따거! 낭자! 일단 항복을 합시다. 살아서 훗날을 기약하는 게...
여월 며칠 더 살겠다고 목숨을 구걸해? 그건 해적...

그때 기찰병들이 괴성을 지르며 흩어진다. 무슨 일인가 돌아보는 장사정과 여월.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비명을 지른다. 두 사람을 향해 굴러오고 있는 거대한 물레방아가 보인다. 좌우로 몸을 날리며 물레방아를 피하는 장사정과 여월. 물레방아는 사정없이 굴러와 무기가 실려있는 수레를 덮친다. 수레에 실려있던 수류병과 연무탄이 연쇄폭발하며 시장통은 아수라장이 된다. 잠시 후, 연무가 걷히며 시야가 깨끗해진다. 기찰병들이 주변을 살펴보는데, 장사정도 여월도 이미 어딘가로 사라진 후다.

40. 벽란도 - 성벽 근처, 상점 앞 [낮]

어느새 몸을 피한 여월이 주위를 살핀다. 장사정은 이미 사라졌고 기찰병들만 사방으로 흩어지는 중이다. 이를 악물고 돌아서는 여월, 문득 멈춘다. 자신의 수배 방이 붙어있다. 방을 떼어내는 여월, 그 뒤에 장사정의 얼굴이 숨어있다. 그 밑에 써 있는 이름 '장사정'

여월 장사정...

41. 솔 발 [낮]

반쯤 부서진 수레에서 무기를 꺼내는 산적들.
춘섭은 장사정의 등에 박힌 화살을 뽑고 있다.

춘섭 하여튼 미련하긴, 이러다 대가리에 맞으면 골로 가는 거 아뇨.
장사정 두령한테 대가리라니.
춘섭 그럼 뭐, 대가리님이라고 부르나?

옷을 벗는 장사정, 안에 나무로 엮어진 갑옷을 입고 있다.
갑옷까지 벗으면 그것을 뚫고 들어온 화살 때문에 등 전체에 빨간 점이 찍힌 듯 상처가 빼곡하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깨를 돌려보는 장사정.

장사정 가자! 바다로!

42. 몽타쥬

경쾌한 음악과 함께

- 숲
화포와 무기를 나눠지고 숲속을 달리고 있는 산적들의 모습이 보인다.

- 바다
여월과 부하들. 박모로부터 산 신무기를 신고 나룻배를 저어 가고 있다.
나룻배가 거대한 해안절벽을 돌아나가면 여월의 해적선이 위용을 드러낸다.

- 산능선
웅대한 산맥의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산적들의 모습. 거친 호흡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바다를 향하는 장사정과 부하들.

- 해적선
여월의 지휘에 따라 해적선이 고래잡이에 최적화되고 있다.
화포를 개조해 작살을 끼우고 있는 용갑과 참복.

- 갈대밭
웃자란 갈대밭 사이를 달리고 있는 장사정의 부하들의 모습.

- 해적선
갑판위에서 연노 연습을 하고 있는 흑묘. 그러나 화살은 표적을 한참 빗나간다.
지켜보던 여월은 흑묘의 연노를 받아들이고 표적을 겨눈다.
여월 연노를 조준하고 쏘면 표적 뒤 멀리 붙어있던 방의 장사정의 얼굴 한복판에 명중한다.
부러워하는 흑묘의 머리를 형클어뜨리며 장난치는 여월.

- 해안가

낮은 오르막 언덕을 오르고 있는 장사정과 부하들. 마침내 언덕위에 오르면 그들 앞으로 거대한 바다가 펼쳐진다. 기대반 설렘반으로 상기된 표정의 장사정과 부하들.

43. 원덕전 - 내부 [낮]

이성계와 신하들 모여있다.

정도전 지금 산적과 해적을 토벌하고 있으니 수일 내로 국새를 찾아 모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성계 경이 말하는 수일이 며칠인지 모르나, 내가 그대에게 준 날짜는 닷새가 남았을 뿐이오.
정도전 예, 즈은하, 각골하여 명심하고 있사옵니다. 비록 국새가 없다하나 이미 개국을 선포하고 칙령을 반포했으니 천도를 하심이 어떠한가 아뢰옵니다.
이성계 천도라?
정도전 무릇 사가에서 집을 지을 때도 무덤위에 짓지는 않는 법, 하물여 일국의 궁이 고려의 무덤위에 서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상질 그러하옵니다. 이곳 개경은 고려의 구신과 세족들이 도사리고 있는바, 조선의 도읍지를 선정해 천도를 천명하심이 건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데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이성계 어디로 천도를 하자는 것이오.
정도전 한수 이북 북악산 아래가 천년 도읍지로 최고의 입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성계 한양이라...

이성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정도전과 한상질이 알게 모르게 눈을 맞추는데,

이성계 천도는 그리함이 마땅하겠소. 단, 새로운 도읍지에 국새 없이는 입성치 않을 것이오. 닷새 남았소.

44. 원덕전 - 앞 [낮]

정도전과 한상질이 낮게 속삭이며 걸어간다.

한상질 하~ 안 통하네. 천도로 신경을 좀 돌리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말일세.
정도전 모흥감이 해내주길 바랄 수 밖에.
한상질 그나저나, 전국에 토벌령을 내렸으니 눈에 보이는 성과물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참에 불손한 것들을 모두 잡아들여 참하고 어린 것들은 공녀와 환관으로 명나라에 보내버리면 어떻겠나?
정도전 불손한 것들이라니?
한상질 천도를 하게 되면 한양은 금싸라기 땅이 될 터인데 남 좋은 일 할 수는 없잖나? 그쪽 마을 몇 개 쓸어버리고 고려 잔당이라고 뒤집어씌우면 될 일 아닌가? 입자 잃은 땅은 우리가...
정도전 (비열한 웃음) 그렇지... 피를 봐야 주상이 진정할테니.

45. 바닷가 - 어촌마을, 해변 [낮]

벧머리에 서서 비장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는 장사정.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바람은 세고 파도는 흰 포말을 만들고 있다.
돌아서는 장사정. 산적들이 뱃을 놓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작은 어선 하나를 훑쳐, 앞뒤로 주화와 화포를 장착하고 해적 열 명이 타니 배가 짝 찼다.
비록 배는 출항도 못하고 있지만, 장사정의 기상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장사정 우리는 비록 산중거사로 살았지만 이성계처럼 비겁한 도적은 아니되었다.
 그는 어부지리로 나라를 얻었지만, 우리에게서 국새를 받을 때는 그만한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저 바다에 우리를 호강시켜 줄 고래가 있다.
 마지막 결전에 임함에, 모두 산적답게 굴자! 가자 바다로!

우와아~ 함성을 지르는 산적들. 그리고 조용하다.
배는 여전히 그 자리다. 아무도 배를 운항할 줄 모른다.

장사정 가자니까?
춘섭 (부하들에게) 안가냐?

부하들의 눈이 하나 둘 철봉에게 향한다.

철봉 (긴 한숨) 바다는 말입니다,

산만이가 철봉 뒤통수를 친다.

산만 가자고! 바닷물 확 다 마셔버리라고 하기 전에.

철봉은 별 수 없이 일어나 돛을 내리고 키를 잡는다.
배가 미끄러지듯이 나아간다. 장사정이 흐뭇한 얼굴로 해풍을 맞는다.

46. 황해 - 관선 [밤]

돛대 위에서는 수군 네 명이 올라 사방으로 동시에 살펴보고 있다.
모흥갑이 직접 선수에 서서 불화살을 날린다.
불화살로 잠시 바다가 밝아진다. 눈에 불을 켜고 고래를 찾는 모흥갑.

오만호 통사! 이건 정말 바다에서 고래 찾기입니다. 물론 못 찾을 바야 아니지만, 이
 런 일은 아랫것들 시키시고, (은밀하게) 제가 좋은 곳으로 모실,

오만호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는 모흥갑. 오만호 킁킁거린다.

모홍갑 한 쪽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오직 하나만 보게 된다. 잃어버린 눈깔과 바꿀만한 일 하나만.

모홍갑, 목을 풀어주자 오만호 제자리에 주저앉는다. 모홍갑이 낮게 명령한다.

모홍갑 물과 식량을 채울 때 빼고는 모든 배가 바다에 떠있어야 할 것이다.

47. 황해 - 나룻배 [밤]

장사정이 뱃머리에 서서 검은 바다를 주시한다.
구토 소리 들린다. 장사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뱃멀미에 시달려 널부러졌다.
산만이가 멀미에 지쳐 쓰러진 철봉이를 발로 툭툭 친다.

산만이 (말하기도 힘들다) 해적단 중추라더니... 멀미나 하고...
철봉 멀미는... 만인 앞에... 평등, 헉헉...
산만이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나?...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철봉 다... 길 따라 가는 거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
산만이 입만 열면 씨... 길은 무슨... 전부 물이구만...

춘섭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스님 (장사정 본다) 괜히... 두령이 아니야.
춘섭 원래... 대장군 감인데... 시대를 잘 못 만나서...
스님 역시... 호랑이는 산을 떠나도 호랑이...

장사정이 기다렸다는 듯 허리를 꺾으며 구토를 한다.
억지로 참은 만큼 구토도 우렁차다.
그 소리에 잠잠했던 해적들이 덩달아 헛구역질을 시작한다.

48. 황해 - 해적선 [밤]

선수에 서있는 여월, 밝은 빛에 얼굴이 환히 드러났다가 어두워진다.
갑판에서는 해적들이 투석기에 횃불 덩어리를 올려 바다로 쏘고 있다.
횃불 덩어리가 긴 포물선을 그리며 별똥별처럼 밤바다를 가르다.
멀리서 고래가 숨을 내뿜지만 깃발 박힌 고래가 아니다.

49. 어느 섬 [밤]

해안가에 횃불이 밝혀있고 십수명의 긴장한 남자들이 옷을 벗고 배를 만들고 있다.
나무못을 박는 남자들, 어유를 개어 틈을 메꾸는 남자들,
불에 달군 인두로 뱃전을 지지는 남자들 모두 땀에 번들거리는 근육들이 장하다.
그 중에 터번을 쓴 아라비아 남자들이 여럿 보인다.

배는 미끈하며 날렵하고 돛대 위로 검은 기가 올라가고 있다.
바람이 불어오며 깃발이 펴진다. 소마 깃발이다.
상갑판에서 소마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깃발을 바라보고 있다.
부두목이 올라와 예를 올린다.

부두목 주화 2문, 연발화포 6문, 해상오룡탄 300개 등 모두 선적했습니다.
소마 드디어 해풍을 맞겠구나.
부두목 이랍극(이라크) 장인들까지 동원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대단주님께서서는 세상에
 서 가장 빠른 배를 손에 넣으시는 겁니다.
소마 내일 아침에 띄워라. 하루를 늦추면 여월이가 하루를 더 살지 않더냐.

소마가 검은 이를 드러내며 웃어 보인다.

50. 황해 - 나룻배 [낮]

청명한 날씨에 바람도 부드럽다.
잔잔하게 뱃전을 때리는 파도, 누군가의 손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물로 툭 떨어진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 물을 떠올려 마시는 사람, 장사정이다.
몇 달을 표류한 듯 초채한 모습에 갈증으로 입술이 하얗게 말랐다.
스님은 수류병을 술이라고 생각했는지 마개를 따려 안간힘을 쓴다.
철봉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장사정을 말린다.

철봉 두령... 바닷물 마시면... 갈증만 더 납니다... 죽어요...
산만이 (때릴 힘도 없다) 뭘 헛소리야... 짹조름하니 간도 잘 맞는구만.
춘섭 두령... 산으로 갑시다.

장사정이 몸을 뒤집어 손으로 물을 퍼마신다.

INS - 바다 속

무언가 왜곡된 시선이 장사정의 배 밑을 올려본다.

장사정이 다시 헛구역질을 한다. 기력이 다 해 구토 할 힘마저 없는데,
바다 저 깊은 곳에서 뭔가 검은 것이 올라온다. 상어다.
장사정이 고개를 드는 순간, 상어가 불쑥 튀어나와 입질을 한다.
잠깐만 늦었어도 장사정의 머리가 잘려나갔을 판이다.
장사정과 산적들은 모두 놀라 입이 떡 벌어진다.

춘섭 저, 저, 저, 저...

사냥을 놓친 상어가 화가 나는지 다시 솟구쳐 얼이 빠져있는 장사정 옆으로 지나간다.
상어의 흉측한 이빨과 부리부리한 눈... 산적들은 떨미도 잊은 채 별떡별떡 일어선다.

장사정 고래다!
철봉 아니요~

장사정 고래다 고래~
철봉 상어요 상..우웻!

고래다, 상어다, 시끄러운 와중에 상어가 뱃전을 빙빙 돌고 있다.

장사정 잡아라~ 고래가 나타났다.

장사정은 활에 서너 개의 화살을 한 번에 끼워 쏜다.
등에 살이 박힌 상어가 놀라 수면으로 뛰어올랐다가 멀리 사라진다.
장사정이 창을 들어 멀어지는 상어를 향해 던진다.
창 뒤에 묶인 밧줄이 빠르게 풀리고, 창은 상어의 등에 명중한다.

춘섭 명중이다~
산만이 잡았다~

상어가 고통에 난리를 치다가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한다.
창끝에 묶인 밧줄은 선수에 고정되어 있어 배까지 끌려가기 시작한다.

장사정 살았다~ 화포를 준비하라.
철봉 고래가 아니고, (멀미) 우우웻!
춘섭 창을 던져라!
장사정 화포를 준비하라~

배는 끌려가고, 겁은 나고, 갑판은 좁고, 서로 소리치고... 그런 난리가 없다.
장사정이 산적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 주화를 방포한다.
화포 몇 배의 위력이다. 반동에 밀려난 주화가 돛대를 치고, 돛대가 부러진다.
폭음에 놀란 상어는 더 빨리 헤엄을 친다.
돛이 사라져 맞바람을 맞지 않으니 배는 더 빨리 끌려가기 시작한다.
고물에 실은 수류병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달그락거린다.

장사정 화약을 채워라! 재장전~

51. 소마의 배↔나룻배 [낮]

병풍바위가 절경을 이루고 있는 섬, 기암절벽을 돌아 소마의 배가 출정하고 있다.
그의 배는 금방이라도 옆으로 기울 듯 폭이 좁고 뽀족하지만, 대신 물보라가 일 만큼 속도는 빠르다. 상갑판에 서있는 소마는 즐거운 얼굴로 바람을 맞는다.

소마 여월이 연안을 훑고 있다고?
부두목 예 대단주.
소마 해적이 먼 바다를 버리다니, 죽을 길을 찾아 가는구나.
부두목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를 갖고 계시니 그년을 잡는 것은 시간문제이옵니다.

선수에 서서 포효하는 소마.

소마 여월아~ 세상 끝까지 도망쳐봐라.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가 있느니라~

그 순간 소마의 옆을 비명소리와 함께 쓴살 같이 지나쳐 지나가는 장사정의 배.

소마 바...방금 뭐가 지나간거 같은데?
부두목 (어리둥절) 네? 그... 그럴리가?

장사정은 안간힘을 다해 선미의 화포를 집어든다.
화포를 어깨에 메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상어를 조준하는 장사정...
방포를 하는 순간, 배가 방향을 바꾸고 장사정은 몸이 돌아간다.
포탄은 엉뚱하게 소마에게 날아가 상갑판을 부수고, 소마는 하갑판으로 내동댕이쳐진다.
소마가 일어나며 전투 명령을 내린다.

소마 전투준비! 화포를 견주어라.

주화와 연발화포 등이 장사정을 조준하데, 장사정의 배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있다.

소마 방포!

주화가 불을 뿜고, 연발 화포들이 일제히 사격을 한다.
그러나 겨우 장사정의 배 꿈무늬에 미칠 뿐, 너무나 빠른 그 배를 따라잡지 못한다.
소마, 부두목을 노려본다.

소마 이 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며?
부두목 (겁에 질려) 누가요? 제... 제가요?

장사정의 화포공격에 위태롭게 달려있던 해적깃발이 똑부러진다.
소마, 분노의 괴성을 지른다.

52. 해적선↔나룻배 [낮]

잔잔한 바다 위에 물결이 일면서 조선 깃발이 떠오른다.
어미 고래가 물을 뿜고, 잠시 후 새끼 고래가 따라 올라온다.
큰 숨을 쉰 다음 수면에서 장난치듯 노니는 고래 모녀.
그들의 모습이 망원경 시점으로 전환된다.
망루에서 망원경을 보던 참복이 소리를 지른다.

참복 남동쪽 2천 보~
여월 (선수로 움직이며) 해류를 따라 기동한다. 일각¹⁰⁾에 한번 씩 떠오르니 기회를
봐서 한 번에 잡아야 한다.
용갑 작살을 준비하라.

10) 일각 (一刻) : 15분

해적들이 화포에 작살을 쏜다.

작살 앞쪽에는 밧줄이 연결되어 고래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져있다.

참복 천 오백보~
여월 오백 보 안쪽에 들어오면 방포한다.

선수에 서서 멀리 떠도는 고래를 유심히 바라보는 여월, 아직 새끼 고래를 발견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멀리서 화포 소리가 들리며 고래가 물속으로 사라진다.

여월이 급히 참복을 바라본다.

여월 수군이나!
참복 (주위를 둘러보다) 배다~
용감 무슨 뱃가.
참복 ...겁나 빠른 배다~

여월이 뱃전으로 뛰어간다. 멀리서 뚝도 없는 작은 배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중이다.

장사정의 배다.

굳건히 서서 화포를 겨누는 장사정, 그러나 파도를 맞아 몸이 튕기며 놓치고, 화포는 바다에 빠져버린다.

이제 방법이 없다. 장사정이 도끼를 집어들고 상어에 묶인 밧줄을 잘라내려 한다.

도끼질을 하지만 몸을 잘 가누지 못해 줄을 자르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장사정의 배는 해적선 옆구리로 붙는다.

여월이 장사정을 한 눈에 알아본다. 그리고 배에 실린 주화와 수류병 등도 함께 본다.

여월 장사정!

연노를 드는 여월, 장사정을 향해 쏘는데 화살은 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장사정의 배는 여월을 약올리듯 해적선을 한 바퀴 빙 돌고, 여월은 뱃전을 뛰어 따라가며 계속 연노를 발사한다.

화살은 바닥나고, 여월을 실컷 약올린 나룻배는 먼 바다로 방향을 잡아 떠나간다.

돌아보는 여월, 흑묘가 대궁을 던져준다.

흑묘 저 미친 상노무 호랭이.

여월 옆에 서있던 흑묘, 그녀 대신 욱을 해준다.

53. 바다 - 나룻배 [낮]

대도를 뿔아드는 장사정, 줄을 내려치려다가 멈칫한다. 배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장사정 됐다. 힘이 다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라.,

창칼을 잡고 긴장하는 산적들, 과연 잠시 후에 배가 멈췄다.

기뻐서 환호하기엔 아직 무섭다.

장사정 끌어올려라.

조심스럽게 밧줄을 잡는 산만이와 산적들, 천천히 밧줄을 끌어당기는데,
어느 순간 밧줄이 다시 풀리며 팽팽해진다.
놀라 밧줄을 놓고 뱃전에 납작 엎드리는 산적들.
그런데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출렁이면서 뒷전이 들린다.
상어가 안간힘을 다 해 잠수를 하니, 이대로라면 바다로 끌려들어갈 판이다.
주화며 화포 등이 굴러가 물에 빠지고, 스님은 빠르게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기 시작한다.

장사정 전부 뒤로!

산적들이 모두 고물로 몰려가 쿵쿵 뛰고 매달리며 난리를 친다.
배는 놀이동산 바이킹처럼 거의 수직으로 들리기 직전이고,
수류병 몇 개 쏟아져 바닥을 구른다.
그대로 정지상태가 이어지더니, 잠시 후에 배 뒷부분이 내려오면서 수평을 잡는다.
그리고 얼마 후, 상어가 배를 뒤집은 채 떠오른다.

장사정 잡았다! 고래를 잡았다!

일제히 환호성을 울리는 산적들, 철봉이가 산만이를 쿡쿡 찌른다.

산만이 왜!
철봉 저거 고래 아닌데.

산만이가 철봉이 얼굴을 후려친다.

54. 어촌마을 - 해변 [낮]

해변에 올려진 상어, 족히 4~5m를 넘나드는 대형 백상아리다.
해적들이 상어 주변에 몰려있고, 스님은 한 쪽에서 수류병 마개를 따려고 온 힘을 다하는 중이다.

장사정 고래가 아니라고?
철봉 상어라니까요.
장사정 이렇게 큰데?
철봉 고래가 구렁이면 이건 지렁입니다.
산만이 확 씨! 지렁이로 목을 졸라버릴라.

산만이는 으박을 지르고 철봉이는 또 맞을까 움찔한다.

장사정 고래가 진정 그리 크더냐.
철봉 세상에는 못 봐서 못 믿는 것이 있고, 막상 봐도 믿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래가 그렇습니다. 직접 한 번 보면, 오줌 질질 씹니다.
장사정 두려움이 크기를 만든다. (상어 가리키며) 처음엔 집채 만해 보이더니 잡아놓

고 보니 겨우 황소 두 마리 아니더냐. 고래가 제 아무리 커도 물에 살면 물고
기고 밥상에 올라가면 생선이다.

(부하들을 둘러본다) 배를 수리해 다시 바다로 간다.

부하들과 함께 나룻배로 가는 장사정,
끝내 수류병을 따지 못한 스님도 일어서며 신경질적으로 수류병을 집어던진다.
수류병이 빙글빙글 날아가더니 배 안으로 떨어지며 엄청난 폭음과 화염이 오른다.
장사정은 폭발에 밀려 봉 날아가 떨어지고, 나룻배는 산산조각이 난다.
황당한 표정의 스님과 장사정 패거리들.

스님 나무관세음보살

55. 수군진 - 망루 [밤]

대, 중, 소형 군선 몇 척이 정박해 있고 수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망루에서 해도(海圖)를 보고 있는 모흥갑.

오만호 고려잔당을 발본색원한다고 팔도에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게다가 공녀와 환
관으로 바칠 아이들까지 잡아들이고 있으니, 굳이 고래를 안 잡아도 조정에서
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모흥갑의 서늘한 눈빛에 말을 멈추는 오만호.

모흥갑 옛날에도 너처럼 말 많은 놈이 하나 있었다. 재잘재잘, 조잘조잘...

내가 칼을 뽑지 않을 수 없었지. 더 입 놀려 보거라.

오만호 아... 아닙니다. 이제 곧 물과 식량 선적이 끝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밖으로 수군진 전경이 보인다.

56. 수군진 - 근처 [밤]

파선과 버려진 무기와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곳, 장사정 일행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민다.

만을 지나 멀리 번을 서는 군병들이 보인다.

선착장 입구로 가면 들킬 것이니 만을 가로질러 배 옆구리를 타고 오르는 방법을 택했다.

철봉 진짜 군선을 훔치시렵니까?

장사정 고래가 크다 한들 내 배포만 하겠느냐.

철봉 저리 큰 배는 절대 혼자서 운항할 수 없습니다. 배를 훔친다 해도 움직이지
못하면 모두 죽는 건데... 저는 이만 하직 인사 올리렵니다.

산만이 가 이새끼야, 가!

장사정 가긴 어딜 가. 배를 몰아야지.

철봉 혼자선 안 된다니까요.

장사정 애들 시키면 되잖아.

철봉 에효~ 누가 막내 말 들겠습니까? 서열이 풀전데. 맨날 두드려 패기나 하고~

따지고 보니 그렇다. 장사정이 고민할 것도 없이 서열을 올려준다.

장사정 그..그럼 지금부터 철봉이가 서열... 2위다.
철봉 (장사정 손을 잡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섭 니미!
산만이 두령!
장사정 (철봉에게) 배를 물려면 몇이나 필요한가.
철봉 똥똥한 놈들이면 한 대여섯 놈 정도랄까요?
장사정 뿔아라.
철봉 (산적들 몇을 추려낸다) 너, 너, 너, 너...그리고 (산만을 보다가 귀를 잡아 당기며) 너 이새끼야, 따라와, 상노무 새끼, 어린노무 새끼, 아주 그냥!
산만이 이런 씨!
장사정 형님이다. 모셔라.

산만이가 어찌질 못하고 죽을상을 쓰는데

철봉 두령은 나머지 떨거지들 데리고,
춘섭 (발끈한다) 떨거지?
철봉 (무시한다) 다른 배들이 못 따라오게 짝 다 불질러야 합니다.
장사정 응? 그래 아... 알았다.
철봉 (훈계톤)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두령은 다 나쁜데 멍한 거, 그게 젤루 나빠! 햇불통 옆에 기름이 있을 거요. 일단 기름 먼저 들이붓고 배에 올라탄 다음 불 화살로, 응? 등신마냥 불 먼저 싸지르면 산통 다 깨니까. 알아먹었어요?

듣고 있던 장사정, 철봉의 말에 슬슬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철봉 (장사정을 보며) 왜요? 꺾적지근하시나?
장사정 (분을 삭히며) 아니다.
철봉 (산적들에게) 니들, 해엄은 칠 줄 알지? (춘섭 보며)
춘섭 내 어릴 적 별호가 대동강 쏘가리였...소.
산적1 난 압록강 중태기.
산적2 한강 가물치요.
산만 (철봉이 바라보면) 지리산 반달곰.

철봉이 산만의 뒤통수를 친다.

철봉 들어라. 바다 수영은 말이다, 산골 무지랭이들이 뭘 알겠냐만, 파도랑 싸우면 죽는다. (손짓으로 부드럽게 웨이브) 이렇게 이렇게. 구랭이 담타 듯 파도를 타면서, 알았지? 자! 다들 나를 따른다. (장사정에게) 두령도 따라오쇼.

철봉은 먼저 나서고, 산적들이 모두 장사정을 바라본다.

저 싸가지들 그냥 둘 거냐는 항의의 눈빛들이다.

장사정 ...가자.

CUT TO

자유형으로 성큼성큼 나가는 철봉.

장사정과 산적들, 열심히 개헤엄을 치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다.

그 중 몇은 물속에 잠기고, 그나마 수영을 좀 하는 산적들이 끌고 힘겹게 만을 건넌다.

CUT TO

군선에 짚으로 감싼 물 항아리와 음식 등이 실린다.

수군들이 짐을 놓고 돌아서면 군선 갑판에 걸쇠가 떨어진다.

철봉이와 산만이 등이 밧줄을 타고 군선 옆구리를 올라가는 중이다.

57. 수군진↔군선 [밤]

수군진 나무 - 군선

장사정과 춘섭은 겨우 나무에 닿고,

군선으로 올라온 산만이 등이 갑판에서 번을 서고 있던 수군들을 소리 없이 처리해 나간다.

배를 장악한 철봉 일행이 갑판에 모여있다.

철봉 내가 신호 하면 넌 저걸 뺏겨서 앞 돛을 올리고, 넌 저거 뺏겨서 뒷돛을 올리
고, (산만에게) 너는 이시키야, 이 상노무 시키, 저걸 끊고 닷 내려.

산만이 에이 씨 진짜... (철봉이 노려보자) 알았수.

철봉이가 사령탑 쪽으로 간다.

산적들이 기가막혀 바라보다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고,

산만이는 칼자루 잡은 손에 침을 뱉는다.

그 시간, 장사정과 춘섭 등은 배를 돌며 기름을 붓고 있다.

번을 들던 수군 하나가 춘섭을 발견하지만, 소리를 지르기 전에 장사정이 조용히 처리한다.

망루

오만호 출정 준비 완료했습니다.

모홍갑 (칼을 챙겨들며 일어선다) 최소 병력만 남기고 모두 승선토록 하라.

수군진 곳곳 - 군선

수군진 곳곳에서 모든 병력들이 무장을 한 채 나무 쪽으로 뛰어간다.

장사정은 다른 배에 기름을 붓고,

또 다른 배에 기름통을 다 쏟은 춘섭은 군선으로 오르는 널다리로 향한다.

수군진 전투

사령탑에 서있던 철봉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수군들을 보고 놀란다. 낭패다.

자기 목을 손으로 그으며 하지 말라 수신호를 보내는 철봉.

신호를 잘 못 이해한 산만이는 밧줄을 자르기 위해 칼을 높이 든다.

철봉 (소리도 못 지르고 계속 자기 목을 그으며) 아니라고 등신들아. 하지 말라고.

힘을 모아 닻줄을 내려치는 산만이, 하지만 어른 팔뚝보다 굵은 밧줄은 칼을 튕겨낸다.
몇 번 더 칼을 휘두르지만 잘리지 않고, 결국 칼을 톱처럼 사용해 썰기 시작한다.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철봉, 마음이 급해 산만이 쪽으로 뛰어간다.

철봉 야 이 등신아, 하지 마! 야 이시키야!

철봉이가 산만을 말리기 직전, 드디어 닻줄이 잘려 바다로 떨어진다.
장사정이 마지막 기름독을 나무 여기저기에 뿌리던 중,
엄청난 굵기의 닻줄이 바다로 빠지는 물소리가 수군진을 울린다.
철봉이가 크게 소리를 지른다.

철봉 야이 상노무 시키야! (어쩔 수 없다) 빨리 돛 올려~

느닷없는 소음에 일제히 뛰기 시작하는 모흥갑과 수군들.

오만호 적경이다!

어디선가 긴급한 타종소리와 손피리 소리 들리고, 수군들이 철봉이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뛰어간다.
산적들은 돛을 올리고 출항 준비로 바쁘다.

모흥갑 군선이다. 군선을 장악하라!

부하들이 타고 있는 배로 관군들이 몰리는 것을 지켜보던 장사정은 횃불을 들고 뿌려놓은 기름에 불을 붙인다. 삼시간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
장사정은 배와 배를 연결하고 있는 널다리를 달려 부하들의 배로 향한다.
불길은 장사정의 뒤를 따라 빠르게 번져나간다.
불길이 번지자 관군들 우왕좌왕 혼란에 빠진다.
배를 뛰어넘고 있는 장사정을 발견한 궁수들이 장사정에게 화살을 날린다.
요리조리 피하며 철봉이 타고 있는 배로 향하는 장사정.
선착장으로 달려오던 모흥갑은 배를 뛰어넘고 있는 장사정을 발견한다.
장사정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모흥갑. 장사정이 뛰는 방향으로 달려간다.
한편 군선에 올라타려는 관군들을 갑판위에서 힘겹게 막고 있는 철봉과 산적패거리들의 모습 보인다.
어느새 달려온 장사정이 긴 깃대를 빼들고 봉처럼 휘두르며 군선에 올라타려는 수십명의 관군들을 제압하며 물에 빠뜨린다.
산만이가 닻줄을 끊은 군선은 바다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얼른 군선에 올라타라는 부하들의 외침대로 군선에 올라타려는 장사정의 등 뒤로 누군가의 고향 소리가 들린다.

모흥갑 (고함) 장~ 사~ 정~~~~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는 장사정, 모흥갑의 얼굴을 발견하고 놀란다.

장사정 모흥갑!

너울거리는 불길을 사이에 두고 장사정과 모흥갑의 눈이 부딪친다.

모흥갑이 장사정에게 돌진한다.

그 때문에 긴 세월을 처참한 고통 속에서 지냈으니, 공격에 살기가 가득하다.

장사정 또한 배를 흠치러 왔다는 사실도 잊은 듯 모흥갑과의 대결에 빠져든다.

둘이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에 수군들 일부는 불을 끄고, 오만호는 병력을 이끌고 모흥갑에게 합류를 하려 한다.

군선에서는 산적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쩔 줄을 모른다.

춘섭 배 돌려.

철봉 배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산만이 두령이 안 났다고 씨!

우왕좌왕 하는데, 스님이 장사정이 두고 간 기름독을 든다.

스님 반야바라밀!

기함처럼 불문을 외치며 기름독을 집어던지는 스님.

멀리 날아간 기름독은 모흥갑 앞에 떨어진다.

뒤로 물러서는 모흥갑과 수군들. 횃불에서 날린 불씨가 떨어지며 나무터가 불바다가 된다.

수군들은 합세하지 못하고 장사정과 모흥갑은 불길 속에 둘만 남아 싸운다.

장사정 네 놈이 살아있었구나!

모흥갑 부귀영화를 버리고 도망가더니 꼴이 아주 가관이구나!

장사정 그 눈깔에도 뭐가 보이느냐?

모흥갑 닥쳐라~

다시 싸움을 이어가는 두 사람. 그 옆, 불타는 군선에서 돛대가 쓰러질 듯 기울고 있다. 장사정이 수세에 몰려 부상을 입는다.

모흥갑 어떠냐. 너 혼자 미쳐 날뛰다고 세상이 변하더냐. 이렇듯 조선은 세워졌고 너는 도둑이 되었으니.

장사정 세상 같은 거 바꿀 생각 없다. 니놈의 칼에 죽은 중근이의 복수만 하면 그뿐!

더욱 강하게 부딪치는 두 사람.

장사정이 승기를 잡아가는데, 불붙은 돛대가 부러져 그들 위로 넘어진다.

둘은 몸을 피하고, 돛대는 선착장을 두동강 내버린다. 거대한 불길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모흥갑 뒤로 물러오는 관군들의 모습을 보는 장사정. 작전상 후퇴해야 하는 상황이다. 멀어져가는 군선에서 장사정에게 밧줄을 던진다.

장사정이 몸을 날려 밧줄을 잡는다. 산적들이 줄을 잡아당기고, 장사정은 수면을 미끄러지듯 떨어져다 위로 솟아오르며 관선에 올라탄다.

장사정 (외친다) 모흥갑! 꼭 돌아온다! 그 땐 목덜미 깨끗이 씻고 기다리거라!

장사정의 외침소리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모흥갑. 분노를 삭히지 못한 모흥갑이 내지른 고탄소리가 먼 바다에 울려 퍼진다. 복수심에 치를 떠는 모흥갑.

58. 수군진 [밤]

수군진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아직도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모흥갑이 분노에 찬 얼굴로 수군진을 바라본다.

모흥갑 남은 군선은.
오만호 중선 몇 척이 고작입니다.
모흥갑 모두 띄워 고래잡이에 나서라. 그것만이 살 길이니.
오만호 (안절부절) 고래가 문제가 아니라 수군진이 침탈당했는데 어찌 목숨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흥갑 잘 들어라. 오늘 일은 국새를 약탈한 해적들이 군진까지 습격한 것이다. 비록 배는 잃었으나 해적을 소탕하고 국새를 되찾으면 그 공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오만호 국새야 찾으면 된다지만 소탕한 해적들은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모흥갑 만들어야지.

59. 몽타주 [낮]

- 어촌 마을
어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한가로운 어촌마을의 풍경이 보인다. 그물 손질을 하던 노인이 언덕 너머에서 일어나는 먼지구름을 바라본다.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와 노인의 가슴에 꽂힌다. 여기저기서 화살이 날아와 어부들에게 박힌다. 불화살들이 초가집 지붕을 불태운다. 관군을 지휘하고 있는 모흥갑.

모흥갑 해적 마을이니 해적과 동rollo 엮어 처단하라!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이 자행된다.

- 여월의 배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뜬다.
여월이 수면에 뜬 어미고래를 쫓아 방향을 잡는다.
어미 고래가 잠수를 하자 노질을 멈추는 해적선, 고래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다.

- 소마의 배
소마의 배도 연안을 훑어가고

- 장사정의 배

사령탑에 서있는 장사정, 그 옆에는 철봉이가 늙은 자태로 서있다. 명실상부한 2인자다. 나머지 해적들은 갑판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다.

- 바닷속

귀신고래 모녀가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간다.

60. 황해 - 해적선 [낮]

수면에 등을 반쯤 내놓고 유유자적 노닐고 있는 고래 모녀.

어미 등에 박힌 조선 깃발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100여보 떨어진 곳에서 여월의 해적선이 소리 없이 접근하는 중이다.

해적들은 모두 조용하고 선수에 있는 화포는 발사 준비를 기다리고 있다.

여월 견줘라.

고래 등을 따라 화포가 움직인다. 작살 끝이 날카롭게 반짝이고 있다.

용갑 지금입니다.

발사 명령을 내리려던 여월, 뒤늦게 어미 고래 옆의 새끼 고래를 보았다.

용갑 단주님! 명령을...

여월이 망설이는 사이, 어미 고래는 다시 잠수를 하고, 새끼 고래가 잠시 물장난을 치다가 어미를 따라간다.

여월 새끼 아니더냐.

용갑 (무슨 뜻인지 알고 한숨을 쉰다) 새끼대요.

여월 새끼가 몇 살이나 된 듯 보이느냐.

용갑 에?

여월 어미 곁을 떠나도 될 나이더냐.

용갑 보아하니 젓먹이 갓난쟁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흑묘 그냥 확 잡죠?

용갑 고래 목숨과 사람 목숨을 바꿀 수는 없잖습니까.

여월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생각에 잠긴다.

참복 정 못하시겠으면 안으로 들어 계시죠. 저희가 알아서 잡을테니.

여월 (부하들에게) 아니다! 경계하라. 아래는 뿔이고 중간은 미역이니 당분간 이 일대에서 맴돌 것이다.

61. 황해 - 해적선 ↔ 소마의 배 [낮]

망루에서 바다를 살피는 참복.

바다 한 부분이 점점 크게 검은 색으로 변진다.

참복 뜬다~

멀지 않은 곳에서 깃발이 먼저 부상하고 뒤를 따라 고래 모녀가 떠오른다.

여월이 강단있게 명을 내린다.

여월 방포 준비.

용갑 (명령을 받아 큰 소리로) 방..

흑묘 방포 준비이~ (명령 가로챘다. 용갑이 바라보면 씩 웃는다)

여월 견줘라.

흑묘 견줘요 오라버니들~

해적들이 화포를 돌려 고래를 겨냥한다.

화포 끝 작살 너머로 조선 깃발이 일렁이고 뿅뿅거리는 고래 소리가 들린다.

입술을 깨무는 여월... 쉽게 방포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용갑 단주님. 며칠 째 고래 풍무니만 따라왔습니다.

여월 ...

흑묘 단주 언니.

용갑 제가 명할까요?

여월 ...아니다... 견줬느냐.

용갑 쏘면 바릅니다.

여월 ...(결심한다) 방포!

흑묘 바..

흑묘가 명을 받아 큰 소리로 전달하는데, 갑자기 여월 배에 폭발이 일어난다.

고래는 놀라 도망가고, 여월이 몸을 추스르며 일어선다.

여월 수군이냐!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용갑, 얼어붙은 듯 서있다.

용갑 단주님...

용갑의 시선을 따라가는 여월, 가까운 곳에서 소마의 깃발을 단 배가 다가오고 있다.

뱃전에 흰 연기가 오르더니, 폭음 소리와 함께 해적선 갑판에 다시 포탄이 떨어진다.

여월 (정신 차리고) 돛을 올려라. 우현 전속력으로!

일제히 올려지는 돛. 다시 화포가 날아오고 돛대가 부러진다.

연발로 쏘아대는 소마의 화포가 불을 뿜고 여월의 해적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여기저기서 ‘키받이가 나갔다’ ‘선다리가 부러졌다’ 등등 외치는 해적들 목소리가 들린다.

배 앞머리에 서서 반쯤 기울어져가는 해적선을 바라보는 소마.
잔인한 미소가 얼굴 가득 번진다.

62. 황해 - 장사정의 배 [낮]

산적들의 구릿빛 몸통이 탄탄해 보인다.
장사정은 이 큰 배를 가진 게 그저 흐뭇해, 상갑판에서 해풍을 만끽하고 있다.

장사정 사방이 망망대해니 사내 배포가 그지없이 뺏어가는구나. 살아온 반평생 산을
 평정했으니, 이제 남은 반평생은 바다를 평정해야겠다. 우리는 바다가 체질이
 야.

춘섭 산채 움막에 비하면 여긴 대궐이죠. 배가 크니 멀미도 나지 않고.

우헤헤엑~ 구토 소리에 돌아보면 철봉이 키를 잡은 채 헛구역질을 하고 있다.

스님 저 중생이 정말 해적이었을까.

장사정 쫓겨난거라니까.

산만 빨리 기술 전수 받고 내쫓아야겠습니다. 서열 2위가 가당키나 합니까?

철봉 두령~

철봉이가 키를 놓고 어기적거리며 걸어온다.
눈이 쾅한 게 멀미로 어지간히 고생한 모양이다.

철봉 근데 말요, 이 너른 바다에 고래가 한 두 마리가 아닌데 무슨 수로 국새 먹은
 고래를 잡는단 말요?

생각해보니 그렇다. 그간 아무도 그 생각을 안했나 보다.
산적들이 일체히 장사정을 바라본다. 장사정 역시 그 생각은 안 해본 것 같다.

장사정 그야... 뭐... 첫 술에 배부를 생각은 없다. 한 마리, 두 마리 잡다보면 언젠
 가는 국새 먹은 보물 고래를 만나겠지.

춘섭 엄청 크대며. 몇 마리 되겠어?

스님 호랑이도 봉우리마다 한 마리 씩 밖에 없으니, 다 같은 이치 아니겠소.

산만이 그럼! 그렇죠!

철봉 (산만을 구박하며) 야 이 드럽게 무식하고 개념 없고 덜떨어진 산골짜기 산적
 노무 시키야. 고래가 피레민 줄 알아? 잡아서 배 가르고 잡아서 배 가르고,
 응? 이렇게 대책 없이 10년을 떠다녀 봐라. 고래 잡기는커녕 구경도 못 할거
 다.

말이 끝나자마자 배 옆으로 엄청나게 큰 어미고래가 뛰어올라 몸을 뒤집는다.
군선에 맞먹는 크기... 파도가 일고 배가 심하게 흔들린다.

고래는 이미 사라졌지만 산적들은 몸이 굳고 말문이 막혀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다.
귀신고래를 직접 보았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산적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입만 병긋거릴 뿐 아무 말 못 하는데,

철봉 구경은 했네.
스님 아...미... 타... 불~
장사정 우리가... 뭘 잘 못 본 거지?
춘섭 그... 그래야만 합니다.
철봉 허허! 봐도 못 믿는다더니, 저게 고래요 두령.

다시 배가 심하게 흔들린다. 산적들이 뱃전을 잡으며 몸을 낮추는데, 새끼 고래가 떠오른다.
생각보다 작다, 장사정이 헛웃음을 지으며 일어선다.

장사정 허... 허허... 보았느냐. 처음엔 태산만하더니 다시 보니 겨우 황소 서너 마리
크기구나. 두려움이 크기를 만든, 으하악!

말을 하는 동안 바다 아래가 점점 시커멓게 변하더니, 어미 고래가 섬처럼 떠오른다.
경악하는 장사정... 그 크기며 위용이 감히 범접할 대상이 아니다.
산적들 모두 손가락질을 한 채 입을 벌려 아무 소리도 못 내는데, 철봉이는 심드렁하다.

장사정 고... 고...래,

어미 고래가 숨을 내뿜으면 물줄기가 수 길 높이로 솟아오른다.

장사정 코가... 코가... 등에 달렸다. 코가 등에....
철봉 그렇다니까요.
산만이 코가 등에 달렸어!
철봉 (산만이 뒤통수 치고) 몇 번을 말해! (고래 보며) 보자... 좀 작은 놈일세.

고래 모녀가 잠수를 해서 사라진다.

춘섭 자, 작아? 저게?
철봉 암놈이라 그런가?
장사정 그, 그럼 더 큰 놈도 있나?
철봉 물론이죠. 거시기가 (두 팔을 크게 벌린다) 이렇~게 굵은 놈도 있는데.
장사정 ...거시기가 뭔데?
철봉 수염요.

장사정, 두려움에 짓눌려 완전 힘 빠지고 의지도 투지도 잃었다.
어느 새 모여든 부하들을 둘러보면, 그들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철봉 안 잡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떠오를텐데.
장사정 저게... 화포로 잡히겠나?
철봉 한 열댓 방 쏘면 지도 아프겠지요. 아프면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건질 수도

있고, (놀리듯) 불끈 들어서, 응?
 장사정 저걸... 잡는다고?
 철봉 물고긴데요 뭐. 생선, 생선. 빨리 잡아요~

덜덜 떨면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장사정과 부하들

철봉 거봐요! 못 봤으면 말을 말라했죠? 이 드넓은 바다에선 이깟 고래는 아무리 커 봤자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죠.

장사정이 갑자기 철봉을 걷어찬다.

장사정 먼지? 저렇게 큰 먼지 봤어?
 철봉 두령! 서열2위한테 경박하게 발길질이 뭐유?
 장사정 이게 오냐오냐하니까! (모두에게) 야! 이제 재 다시 막내다!

장사정의 말에 다른 해적들도 함세해 한마디씩 욕을 하며 철봉이를 밟는다.

춘섭 고래가 저만했으면 바다에 못 오게 했어야지.
 산만이 저런 게 고래면 말렸어야지.
 장사정 감히 우리를 바다로 끌어들여?
 춘섭 고래 눈동자를 더 크게 그렸어야지!

모든 죄는 철봉이에게 돌아간다. 철봉이는 비명만 지르고 스님은 여전히 넋을 잃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

스님 고래가 저러하니... 부처님 손바닥은 얼마나 넓은지고...

장사정이 철봉이를 밟다말고 씩씩대며 외친다.

장사정 가자!
 춘섭 어디로요?
 장사정 산으로!
 춘섭 (신나서 소리친다) 산으로 가랍시다~
 산적들 우와~

산적들은 집에 가자는 말에 비로소 살아난 듯 환호를 지르며 흩어진다.

63. 황해 - 여월↔소마의 배 [낮]

반 쯤 기울어진 여월의 배 옆으로 소마의 배가 멈춰있다.
 뱃전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여월과 소마,

소마 소단주. 무고했던가.
 여월 ...오셨는가.

소마 바다가 불러서 왔네.
 여월 한 번 떠난 바다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해적임을 모르셨던가.
 소마 니년도 해적이 아닌 듯 보이는구나. 바다를 내주었더니 어부가 되었더냐.
 화포에 작살이나 꽂아두다니.
 이 거리에서 화포 한 방이면 너와 부하들은 모두 물고기 밥이 될 것이다.
 어떠하냐, 죽음을 앞둔 바다의 냄새가.

여월은 대답이 없고, 흑묘와 참복이 등은 칼을 뽑아들고 여월을 에워싸려 한다.

여월 그만둬라. 화포를 막지 못하는 한 방법이 없다.
 용감 어차피 많이 살았는데, 싸우다 죽으면 그만이지.
 여월 경거망동 마라. 난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으나, 너희는 나를 위해 살아남으면 된다. 그것이 형제니라.
 (소마에게) 소마. 그대와 나의 은원이니 그대와 내가 푸는 것이 마땅하다.

여월이 뱃전에 쌍검을 박고 빈 손바닥을 보여준다. 무장 해제다.

소마 허허, 순수한 년 같으니. 니년은 그래서 대단주 감이 아니니라.
 (부두목에게) 배를 대어라.
 부두목 대단주님... 관선이...

조심스럽게 손짓을 하는 부두목. 관선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64. 군선 [낮]

장사정과 산적들은 팔베개를 하고 나란히 갑판에 누워있다.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그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몽실하다.
 뱃전을 두드리는 파도 소리가 음악처럼 들린다.

장사정 한 끼를 먹어도 고기를 먹어야지 생선이 말이 되나.
 춘섭 우린 산이 체질이지!
 산만이 비린내 나는 해적 나부랭이들!
 장사정 산에는 봉우리마다 주인이 있지만 바다는 어디 그렇더냐.
 어딜 가도 해적 깃발 하나 보이지 않는구나.
 춘섭 남자는 산, 여자는 바다!
 장사정 임금이 못나면 역모를 두려워하고, 도둑이 못나면 바다로 쫓겨나는 법,
 오죽 못났으면 너른 땅 두고 배 한척에 의지해 부표처럼 떠돌겠느냐.
 이러니 해적들이 도적들 중 젤 모자란 것들이라고 하는게야~

장사정이 뭔가를 발견하고 말을 멈춘다.

배 한쪽에서는 여월이, 다른 쪽에서는 소마가 바라보고 있다.

장사정의 배가 두 해적선 사이에 끼어있다.

65. 황해 - 장사정↔여월↔소마의 배 [낮]

여월이나 소마나 모두 장사정에게 원한이 있다.

장사정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월과 소마를 번갈아 보다가 여월 쪽에 손을 흔든다.

장사정 남자! 나요. 송악산 호랑이.
용감 (여월에게) 저 배가 화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적입니다.
여월 (쌍검을 잡으며 소리친다) 쳐라! 출선이다!
소마 짜라. 부셔버려!

여월 일행이 군선을 다리삼아 소마의 배로 진군하고, 소마의 배에서는 화포가 발사된다. 무너, 수궁노 방식으로 세 개의 포신이 앞뒤로 움직이며 쏘아대는 통에 군선 옆구리가 속절없이 박살난다. 여월 일행들은 속속 소마의 배로 뛰어오르고 산적들은 어쩔 줄 몰라 방황한다.

장사정 탈출하라!
춘섭 어디로요.
장사정 짜워라!
산만 누구랑요.

군선 곳곳이 터지며 파편이 튈다.

장사정 저놈들을 쳐라!

산적들도 일제히 소마의 배로 오른다. 소마의 배에서는 일대 혼전이 벌어진다. 장사정 일행은 이쪽저쪽 아무나 달려드는 모두와 마구잡이로 싸운다. 그러다 장사정과 여월이 맞붙는데,

장사정 남자, 도와주러 왔소!
여월 미친놈!

여월이 장사정을 공격한다. 서둘러 공격을 막는 장사정.

그러다 누군가 둘을 공격하면 합심해 막고, 아무도 없으면 둘이 싸우고... 개판이다.

산만이와 춘섭이도 힘차게 칼을 놀리고, 용감이와 참복이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흑묘도 제법 싸움 흥내를 내지만 끝없이 참복이의 도움을 받는다.

누가 와도 합장을 하며 위기를 넘기는 스님, 그러나 소마의 부두목은 그 작전이 통하지 않는다. 칼을 뽑아 스님을 공격하자, 스님 다시 난간을 넘어 군선으로 다시 여월의 배로 도망을 친다. 끈질기게 쫓아오던 부두목 발을 헛디디며 여월의 배와 군선의 난간 사이에 매달린다.

여월의 배 난간에 매달려 있는 부두목의 손가락을 목탁으로 내려치는 스님. 결국 두 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부두목이 바다에 빠지자 싸움터에서 점점 멀어지는 여월의 배, 스님 돌아가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고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여월의 배가 해류에 의해 점점 멀어져간다.

장사정과 여월이 싸우는 중간으로 소마가 들어온다.

원한이 복합적으로 얽힌 세 사람의 공격에 아군은 없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장사정,
가만 보면 자기가 끼어들지 않아도 둘이 열심히 싸운다.
슬금슬금 옆으로 빠져 싸움을 구경하는 장사정. 춘섭이와 산만이 등 산적들도 눈치를 채고
장사정 쪽으로 슬슬 빠져나간다.
그들 뒤로 스님이 홀로 탄 해적선이 멀리 사라지고 있다.

여월과 소마의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던 중, 흑묘가 팔에 부상을 입고 넘어진다.
그녀의 심장을 도끼로 내려치려는 소마의 부하.
여월이 급히 몸을 돌려 흑묘를 도와주는 사이, 소마의 검이 여월의 어깨를 찌른다.
넘어진 여월의 목에 칼을 대는 소마.

소마 오래 버텼구나 소단주.

해적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 둘 씩 싸움을 멈추고는 병장기를 떨어뜨린다.
마지막으로 여월이 칼을 내리자 소마의 부하들이 함성을 지른다.
장사정은 그들과 같이 환호를 지르며 슬금슬금 소마네 무리로 합류한다.
칼을 버리고 씩씩거리던 철봉, 눈치를 보다 환호를 지르며 장사정 옆으로 간다.
함성소리 그치고, 소마가 장사정을 바라본다.

소마 넌... 뭐냐?

장사정이 한 걸음 나서며 호탕하게 말한다.

장사정 승전을 축하하오. 알다시피,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난 송악산 호랑이 장사정
이라 하오.

소마 장사정?

장사정 그렇소 산과 바다가 만난 것도 깊은 인연인데, 우리 앞으로 형님 동생 하면서
형제처럼 지내는 게 어떻겠소... 형님.

소마 도적 중에 제일 모자란 것이 해적이라더니, 호형호제가 되겠나.

장사정 (소마 툭 치며) 아하하, 귀도 밝소 형님. 으하하

장사정이 호탕하게 웃는다.

CUT TO

울상이 된 장사정의 얼굴에서 카메라 뒤로 물러나면 여월과 장사정의 손이 서로 쇠사슬로 묶여있고 다리에는 쇠구슬이 채워져 있다. 뱃전에 올라 위태롭게 서있는 두 사람.
여월의 상의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해적과 산적들은 굴비두름으로 묶여있다.

소마 (해적과 산적 가리키며) 저것들은 수군진에 바쳐 목이 잘릴 것이고 (흑묘 가리키며) 저것은 만조에 성난 파도를 다스릴 제물로 바치겠으니, 이것이 나 소마 대단주에게 칼을 겨누는 댓가이다.

여월 형제를 버려 대단주의 자리에서 쫓겨나더니, 아직도 버릇을 못고쳤구나.

소마 그리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순진하게 형제 운운하느냐?

세상의 순진한 모든 것들은 권력의 재물이 되는 법
 장사정 홀룡하신 말씀입니다 형님.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이옵고,
 길을 잘 못 들었을 뿐이고,
 소마 일개 산적이 대해적을 치는 건 예의에 어긋남을 몰랐느냐.
 장사정 정 그렇다면... 살려주십쇼.
 소마 귀엽구나. (여월에게) 니년도 저리 빌어보아라.
 여월 모르셨나. 해적의 마지막 길은 두 가지 밖에 없다.
 물고기 밥이 되던가 용이 되어 부활하던가.

여월, 부하들을 훑어보다 흑묘에게 눈이 머무른다.

여월 살아있어라. 죽은 혼이라도 달려와 구해줄테니.
 장사정 산적의 길도 두가지요! 돈을 쫓거나 아니면~

여월, 몸을 뒤로 눕히며 바다로 빠진다.

장사정 어이 남자, 난 아니라니까, 잠깐마안~

쇠사슬이 팽팽해지며 장사정도 덩달아 바다로 끌려간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꼬맹이와 여월의 부하들.
 철봉, 춘섭에게 물어본다.

철봉 나머지 한 길은 뭐유?
 춘섭 침 듣는 애긴데?

66. 황해 - 바다 속 [낮 / 석양]

붉은 수면 아래, 둘이 하염없이 바다로 잠기고 있다.
 장사정이 몸을 굽혀 쇠구슬을 풀어내려 하지만 소용없다.
 팔다리를 놀려 위로 올라가려하지만 쇠구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정신을 잃은 여월의 어깨에서는 계속 피가 솟아오르고, 장사정이 몸부림 칠 때마다 그녀의 손
 목에 묶인 방울이 딸랑거린다.
 방울소리가 음파처럼 멀리 퍼지고, 장사정도 한계에 도달해간다.

CUT TO

어디론가 가던 어미 고래, 딸랑거리는 소리에 눈동자가 움직인다.

67. 고래의 회상 [낮]

산호가 아름다운 바다, 새끼 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고통스럽게 울고 있다.
 단단하게 조인 그물은 머리를 파고들어 피가 흐른다.
 고래의 몸부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데, 멀리서 방울 소리가 들린다.
 망태에 방울을 단 어린 해녀(여월)가 잠수해오고 있다.

조그만 손칼을 이용해 그물을 끊어 고래를 풀어주는 어린 여월.
풀려난 고래가 여월의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사라진다.
멀어지는 새끼 고래 위로 청아한 방울 소리 들린다.

68. 현재 - 황해 : 바다 속 [낮]

어린 고래의 상처가 어미 고래의 상처로 오버랩된다.
정신을 잃어가는 장사정, 그의 시선에 멀리서 다가오는 어미 고래가 보인다.

69. 수군진 근처 - 소마의 배 [밤]

배 한 척 남아있지 않은 수군진 진영 보인다.
예전처럼 상갑판에 잔치상이 놓여있고, 소마가 모홍갑에게 큰 절을 올린다.

소마 인사 올립니다. 소생 소마라 합니다.
모홍갑 여월은 어찌 되었는지 전후를 고하라.
소마 허허허, 그 년이 어부가 될 요량인지 화포를 작살로 바꿨는지 않습니까. 연안을 훑는 다길래 봤더니 고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고래를 잡기 직전, 제가 그년을 먼저 잡아 물고기 밥으로 만들었지요!

모홍갑이 눈을 감는다. 울화통이 치미는 걸 참는 중이다.

소마 기찰이나 특별시 귀뜸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상납은 예전의 두 배를 드릴 것입니다.
모홍갑 니 목숨 값이 얼마나 되겠느냐.
소마 허허허... 고려의 바다를 주무르니, 가히
모홍갑 (말 자른다) 고래 한 마리 값이다. (소마 인상이 굳어진다) 고래를 잡으면 너는 살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다.
소마 고래라... 하시면...
모홍갑 이 배는 내가 접수한다. 너는 고래를 잡고 배는 내가 가른다. 알겠느냐?
소마 통사님. 하나만 명심해 주시겠습니까. (모홍갑 바라보면) 수군이 배에 오를지 언정, 명령을 내리는 건 저 하합니다.

이제까지 비굴하게 무릎을 꿇은 사람답지 않게 소마가 강하게 나온다.

모홍갑 ...제법 사내 흥내를 내는구나. 좋다!

70. 동굴이 있는 섬 [밤]

반짝이는 별, 그리고 찰짝이는 파도 소리.
해변가에 쓰러진 여월과 장사정, 장사정이 놀라 일어서려는데 손이 걸린다.
보면 여월이 쓰러져 있다.

장사정 보게 남자... 어이 단주, 죽었는가?

여월이 반응이 없다. 코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는데, 여월이 희미하게 눈을 뜬다.
흐릿하게 보이는 장사정 얼굴, 웅얼거리는 목소리, 그리고 섬 앞바다에서 물을 뿜는 고래가 혼미한 정신에 지난 시간들이 잠깐씩 떠오른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는 여월.
여월을 추스르던 장사정, 자기 손을 보면 피가 묻어있다.

71. 동굴이 있는 섬 - 숲 속 [밤]

장사정이 여월을 업고 걸어간다.
추 때문에 걸음이 힘들지만 부지런히 뭔가를 찾는 장사정,
노란 꽃이 피어있는 큰 풀(짚신나물)을 발견한다. 꽃을 한웅큼 꺾어드는 장사정.

CUT TO

장사정이 나뭇가지를 호미 삼아 민들레 뿌리를 캐고 있다.
여월이 잠깐잠깐 눈을 떠 훑날리는 민들레 홀씨들을 본다.
달빛을 받은 홀씨가 희고 아름답게 하늘을 날아간다.
그때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의식을 잃고 떨고 있는 여월을 위해 비를 피할 곳을 찾아나서는 장사정.

- 동굴입구

푸득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드는 장사정.
박쥐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저 멀리 시커먼 동굴 입구가 보인다.

72. 동굴 [밤]

동굴 벽에 고래 등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고대 암각화가 보인다.
여월의 옷을 찢어 상처를 살피는 장사정.
짚신 나물 꽃을 떼어내고 줄기를 씹은 다음 그녀의 상처에 붙인다.
여월은 의식을 찾았다 잃었다 하는 와중에 본능적으로 장사정을 밀어낸다.
이번에는 민들레 뿌리를 돌로 뺀 다음 쥐어짤다. 즙이 여월 입으로 떨어진다.
입맛을 다시는 여월.
가만 내려다보니 참으로 예쁜 얼굴이다.
장사정이 여월의 입술에 묻은 민들레 즙을 닦아주고는 옷을 벗는다.
옷을 비틀어 물기를 짜내고 여월을 덮어주는 장사정.

CUT TO

달빛이 은은하게 동굴로 들어오고, 장사정은 돌을 들어 추가 묶인 사슬을 내려치고 있다.
그러다 암각화를 보는 장사정.

장사정 허! 영물이로세...

장사정이 다시 쇠사슬을 내려친다.

73. 수군진 - 감옥 [낮]

피폐해진 수군진, 감옥에는 산적과 해적들이 수감되어 있다.

한쪽은 해적이, 한쪽은 산적이 몰려 앉아있고 철봉은 박쥐마냥 중간 즈음 어정쩡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산만이 마뜩찮은 눈으로 철봉을 노려본다.

산만이 넌 노선이 뭐야? 산적이야 해적이야?
철봉 산적이냐 해적이냐 도둑놈이나 도적놈이나!
용감 이놈아. 해적이랑 산적은 격이 다르니라. 산적은 기껏해야 행인들 붓집이나 터
 는 줌도둑이고 우리는 상단을 털어먹는 대도둑 아니더냐.
춘섭 말에 꼬랑내가 좀 나네. 아까 보니까 니네 두령이 칼싸움에 지더만. 우린 이성
 계랑 싸워도 안져.
흑묘 ...(노려보다가) 이성계가 누군데?
산만이 무식하기가 끝장을 보는구나. 평생을 뱃놀이나 하고 있으니 왕 이름을 아나.
참복 산골짜기 촌놈 새끼가. 해적은 비굴하게 왕 같은 건 안 모셔.
 우린 오직 용의 따님이신 여월 대단주님만 받들지.
산만이 용 딸? 우리 두령은 호랑이 아버지여.
춘섭 큰아버지.
용감 (철봉에게) 이쪽으로 와라. 니가 비록 집은 나갔지만 사내 배포에 산적 나부랭
 이들이랑 어울리겠느냐.
춘섭 남자는 산이라니까.
용감 남자야말로 바다지.
춘섭 근데 두령은 왜 계집일까?
흑묘 (일어선다) 계집? 이런 순 후레텔노무, 씹뿌리나 쪽쪽 빨아먹던 놈들이!
산만이 (일어선다) 뭐? 멀치 똥이나 빼먹던 것들이~

산적과 해적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켜 대치를 한다.

팔다리가 묶여있으니 모두 뺑뺑 걸음이라 뭐 어찌 공격 할 방법이 없다.

춘섭 에라이 씨!

춘섭이 용감에게 박치기를 하면서 싸움은 시작된다.

몸놀림은 불편하나 나름 치열하게 물고 뜯고 굴러다니며 싸움질을 한다.

그러는 사이, 철봉이는 아무데도 끼지 못한다.

74. 동굴 [낮]

여월이 장사정을 끌어안고 잠들어 있다.

여월이 눈을 뜬다. 바로 눈앞에 장사정 얼굴이 크게 보인다.

놀라 일어나는 여월, 고통에 어깨를 만져보면 약초가 지저분하게 붙어있고 피는 멈췄다.

여월은 장사정에게 업혀가던 일이며 치료를 받던 일 등 지난밤이 잠깐잠깐 생각난다.

그 뿐 아니라 발에 달린 추를 떼어낸 걸 보니 제법 부지런을 떴 모양이다.

옷을 추스르고 장사정을 바라보는 여월, 가만 보니 꽤나 잘생긴 얼굴이다.
그 때, 장사정이 뒤척이며 가슴을 긁는다.
함께 묶여있는 여월 손이 어쩔 수 없이 장사정 가슴에 닿는다.
잠시 후, 이번에는 배를 긁는 장사정. 여월 손도 따라 장사정 배에 닿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묶인 손으로 사타구니를 긁으려 한다.
가만있으면 여월의 손이 그의 바지 속으로 달려갈 판이다.

여월 너 자는 거 아니지?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가다 멈추는 장사정...
슬그머니 손을 빼더니 입맛을 다시며 계속 자는 척을 한다.
여월이 장사정 얼굴을 후려친다.

75. 몽타주 [낮]

바위

여월과 장사정이 돌을 들고 번갈아가며 손을 묶은 쇠사슬을 내리치고 있다.
하지만 부서지는 것은 돌이지 쇠사슬이 아니다. 장사정이 돌을 집어던진다.

장사정 남자... 오줌이나 누세.
여월 (쇠사슬 내려치며) 골고루 더러운 소리만 하는구나.
장사정 먹고 싸는 일이 어찌 더러운 일인가. 지당한 일이지... 오줌 마렵다니까!

여월이 허리띠로 묶은 연검을 푼다.

여월 니 손목을 자르면 일이 쉬겠구나.

장사정, 여월을 노려보다 조용히 돌을 집어 쇠사슬을 다시 내려친다.

바다

허리 깊이 정도의 물에 서있는 여월과 장사정.
여월은 무표정하고 장사정은 야릇한 얼굴이다.
잠시 후에 몸을 부르르 떨더니 손으로 물을 저어 멀리 보내는 장사정. 소변을 본 것이다.
장사정은 씩 웃으며 보고 여월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다.
절대 소변 따위는 보지 않은 것처럼.

해변가

취닝쿨 양쪽에 주먹만한 돌을 묶어 빙빙 돌리는 여월.
날아가는 갈매기 떼를 향해 던진다. 갈매기 하나가 묶여 떨어진다.

동굴

둘 다 입이 까맣게 되어 갈매기 고기를 먹고 있다.
달빛이 동굴로 들어오고 있다.

76. 개경 - 원덕전 [낮]

이성계가 정도전 등을 노려보고 있다.

정도전 망국 고려가 불교를 숭상함에, 중들이 문벌과 결탁하여 토호들을 양산하였습니다. 유교의 예법을 따르고 불교를 억압하여 문벌로 들어가는 재물을 왕실로 들리셔야 합니다.
한상질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여 만년 왕국의 기틀을 다지옵소서 존하.
이성계 내 그리 하고 싶어도 칙령에 찍을 국새가 없단 말이오.
정도전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이성계 황공하면 아뢰지 마시오. 이틀!... 이틀 남았소.

정도전 등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

77. 정도전 집 - 후원 정자 [낮]

정도전은 참담하고 한상질은 부산스럽게 왔다갔다한다.

한상질 하~ 안통하네. 승유역불 그거 좋은데 맨날 국새만 찾고.
정도전 수군진을 침범한 해적떼들을 잡았다네. 그들을... 고려 잔당의 마지막 무리들이라 선포하세. 그들을 참함으로써 복고 세력을 완전 소탕한 것으로 말일세. 주상께서 기뻐하실 일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한상질 허면, 국새는? 고래는?
정도전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지. 수군통사 모흥갑의 책임이지. 뿐만 아니라 고래와 국새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아야 하네. 이 일은 역사에 기록됨이 없어야 하니.
한상질 자넨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인재일세!

78. 황해 - 소마의 배 [낮]

모흥갑과 소마가 상감관에서 바다를 바라본다.

모흥갑 이틀 남았다.
소마 산짐승이 다니는 길로만 다니듯, 고래 역시 자기 길을 찾아다닙니다. 이틀이면 잡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흥갑 크기가 대단하다. 문제 없겠는가.
소마 어미를 잡는 게 아니라 새끼를 치는 겁니다. 고래는 새끼를 두고 떠나지 않으니, 그야말로 다 잡은 물고기지요.
모흥갑 기간 내에 잡는다. 그리하면 조선의 바다는 네게 주마.
소마 이미 제 것인데 뭘 또 주십니까.

소마가 지지 않고 말을 받아준다.

돛대에 묶여있는 흑묘,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입술이 하얗게 타들어간다.

모홍갑이 흑묘를 본다.

모홍갑 저 것은 무엇에 쓰려고 저러나.

소마 고래는 용왕이 보낸 사자이자 바다의 영물입니다. 그것을 잡으면 바다가 화를 낼 터, 재물로 써야죠.

79. 동굴이 있는 섬

숲 속 / 낮

장사정과 여월이 태풍 등으로 쓰러진 두꺼운 통나무를 끌어 나른다.

대충 잔가지를 정리하고 나면 길이도 크기도 제각각인 통나무들이 쌓인다.

휩닝쿨로 그들을 엮어보지만, 줄이 약해 끊어지고 만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여월은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

동굴 / 밤

보름달이 떠있는 바다, 작은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두 사람.

장사정 고래가 진짜 새끼를 낳나?

여월 당연하지.

장사정 젓도 먹이고?

여월 어미 고래가 미역 먹는 걸 보고 사람들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어.

장사정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미역국을 드시진 않았을텐데?

여월 그럼, 고래가 사람을 보고 따라했을까?

장사정 내 말이~ 근데 그 방울은 뭐냐?

여월 엄마가 줬어. 줄게 이것 밖에 없다고.

장사정 엄마는?

여월 죽었어. 관군이 와서...

장사정 왜?

여월 아버지가 해적이셨거든. 엄마는 해녀였는데 말야. 그래서 너 같은 관군만 보면 치가 떨려.

장사정 난 산적인데?

여월 수배 방이 붙었던걸. 전 주진군 장교라고.

장사정 산 사람 된지가 언젠데.

여월 죄 짓고 도망쳤나?

장사정 죄를 지었지...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

여월 우리에게 지킬만한 나라가 있었던가? 고려든 조선이든 백성을 안중에나 두었나? 임금과 귀족들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빼고, 어린 아이들을 공녀와 환관으로 바치고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나라 말인가?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느니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네

장사정 (대찬 여월의 말에)허허허... 틀린 말은 아닐세! 그래서 고래를 잡겠다고 나선 게지, 평생 숨어살 수도 없고, 식솔들과 번듯하게 한번 살아봐야 할 것 아닌

가?
 여월 가족은?
 장사정 총각일세. (뉘인 손 들어보이며 음흉하게) 그래서 이리 끊지 못할 인연이 생기지 않았나.
 여월 (피식) 네놈 주둥이는 매를 버는 남다른 재주가 있구나!
 장사정 (진지하게 다가가며) 농이 아닐세! 남자~ 자네가 나에게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여월, 얼굴 붉어지며 뒤로 물러난다.

장사정 (장난) 에~ 얼굴 빨게 진거 같은데?
 여월 (당황) 날이 더워서 그렇다! 수영이나 하러 가자.
 장사정 덩기는? 쌀쌀하구만~

80. 황해 [밤]

달빛 떨어지는 바다. 허리 깊이에서 서있는 두 사람...
 장사정이 피식 웃으며 여월을 보지만, 여월은 달만 바라보고 있다

장사정 바닷물이 따뜻하오 남자.
 여월 좀도둑이 해적단 대단주를 회통하는구나.
 장사정 좀도둑이라니. 오종포가 자그마치 20필이나 걸린 산채 대두령에게.
 여월 난 50필이야. 니 두 배가 넘어.
 장사정 현상금이 중한가. 역사가 인물을 증거하는데. (어깨 부위 상처 보여준다) 보아라. 원나라 장수의 목을 베며 얻은 상처니라.
 여월 (지지 않고 어깨 상처 보여준다) 이국 월남 바다에서 두목을 베며 얻은 상처다.
 장사정 (배를 보여준다) 명나라 군사 500 명을 혼자서 무찔렀어.
 여월 (배를 보여준다) 구라파 앞바다에서 해적 5천 명과 싸운 사람이야, 내가.
 장사정 (씩씩거리다 등을 보여준다) 화포에 맞아봤어?
 여월 (등을 보여준다) 뭐, 이런 거?

그녀의 등에도 손바닥만한 화상이 있다.
 장사정이 바지를 훌러덩 내리며 엉덩이를 보여준다.

장사정 난 호랑이한테 물려서도 살아난 사람이야. 봐!
 여월 (질 수 없다. 엉덩이를 보이려고 옷을 헤집으며) 너 용한테 물려봤어?
 장사정 (입이 떡 벌어지며) 저... 저...
 여월 왜? 말을 못해?
 장사정 (손가락을 가리키며) 저기...

장사정이 가리킨 방향으로 여월이 고개를 돌리면
 저 멀리, 달빛을 받은 검은 무엇인가가 흘러간다.
 돛대 끝에 팔락이는 붉은 깃발... 버려졌던 여월의 해적선이다.

81. 해적선 [밤]

텅 빈 여월의 배. 군데군데 화포로 상해 마치 유령선처럼 보인다.
갑판 난간에 손이 걸치더니 여월과 장사정이 올라탄다.
텅 비어 있는 갑판. 유령선처럼 을씨년스럽다.
그때 누군가가 장사정과 여월을 향해 달려든다.
재빠르게 피하며 제압을 하고 주먹을 날리려는 장사정이 깜짝 놀란다.
공격한 자는 다름 아닌 스님이다. 혼자 고립되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의 스님.

장사정 스님!
스님 두령!

CUT TO

스님의 도움으로 수갑을 푸는 장사정과 여월.
자유로워진 손목을 만지며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속도를 내며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해적선
근심어린 표정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여월.

장사정 너무 걱정 말아라! 다들 아직 살아있을게다!

여월을 위로한다고 은근슬쩍 여월의 어깨위에 손을 얹는 장사정
여월, 장사정을 바라본다. 어느새 장사정의 목을 겨누고 있는 여월의 단검
궁시렁대며 어깨에 있던 팔을 내리는 장사정.
두 사람의 눈치를 보던 스님, 낚새가 이상함을 느낀다.

스님 설마 두사람?
여월 농짓거리 할 시간이 없다! 한시 바빠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

82. 수군진 - 감옥 [낮]

싸우지도 못할 정도로 지쳐있는 산적과 해적들.
용감이와 춘섭이 등은 창살 아래 벽을 타고 흐르는 물을 핥아먹는다.
백선기가 수군 장교를 대동하고 창살 앞에 선다.

백선기 장계가 떨어졌다. 압송치 말고 당장 참하라는 명이다.
장교 예.
백선기 고려 잔당이다. 수급은 따로 떼어 벽란도에 걸어놓을 것이다.

산적과 해적들이 기겁을 하며 백선기를 바라본다.

83. 수군진 - 나루 - 낮

폐허가 되있는 수군진의 나루터에 무릎을 꿇고 일렬로 앉아있는 해적과 산적들.

그들의 무릎 밑에는 바구니가 놓여있고, 뒤에는 칼 찬 군병들이 서있다.
목이 깔리면 수급이 바구니에 담길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는 해적과 산적들... 아무도 구해줄 사람은 없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백선기가 판결문을 읽는다.

백선기 고려 잔당 방모, 여모, 광모, 오모, 길모... (다 읽기엔 너무 많다)... 등등은 들으라. 자고로 백성은 위로 주상을 섬기고 아래로 땅을 일구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야 함이 지당하다.

길게 이어진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선착장 아래서는 굵은 갈대 줄기가 스멀스멀 움직인다. 장사정과 여월이 갈대를 입에 물고 이동하는 중이다.

철봉 (흐느끼며) 으...으.. 차라리 잘 됐지 뭐! 바다에서 버림받고 산에서 구박받고 이제 멸미 없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죽음을 앞둔 산적과 해적들도 착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그 순간 갈대잎을 물고 선착장 아래로 잠수해 오던 장사정과 여월을 차례로 발견하는 철봉

철봉 어? 두령님! 어? 단주님!
산만 헛것이 보이냐? 이 박쥐같은 놈이 죽을때까지도 노선을 못 정하네!

계속 판결문을 읽고 있던 백선기 슬슬 짜증이 난다.

백선기 영광된 조선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백성으로서 모두의 힘을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할 작금에... 이하 생략!
(판결문 던지며) 참하라.

장교 참수하라!

군들이 일제히 장도를 치켜든다.

내리 치려는 순간, 선착장 위로 해무탄 몇 개가 도르르 굴러온다.

백선기 이하 모두들 이게 뭔가 바라보는데, 평평 소리와 함께 해무탄이 터지고 사방은 짙은 연기에 싸인다.

우왕좌왕하는 소리들 사이에 짧은 타격과 비명 소리, 침병이는 물소리 등이 들린다.

백선기 처라. 모두 죽여라. 고려 잔당이다.

연기 속에서 춘섭과 용감이의 포박을 풀어주는 장사정과 여월.

춘섭은 산적들을, 용감이는 해적들을 풀어주고 관군들과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나 철봉의 포박은 아무도 풀어주지 않는다.

철봉 나요 나. 나도 풀어줘야지. (절규) 두령님! 단주님!

연기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되도 않는 명령을 내리는 백선기, 장사정에게 맞아 쓰러진다.

여월은 수군 장교를 제압한 후 가슴팍을 발로 누르고 있다.

여월 쪼그만 여자 아이는 어디 있느냐?
장교 (여월이 칼끝을 목에 대면) 소마의 배에, 소마 배.

여월이 바다 쪽을 바라본다.

84. 바다 [밤]

자욱한 밤안개가 섬 절벽의 기암괴석에 서려 있다.
밤안개를 뚫고 여월의 배가 나타난다.
배 난간에는 작은 구멍정이 줄에 달려있고, 장사정을 제외한 모든 산적들이 타고 있다.
철봉은 아직 어쩔지 결정을 못 내렸다.

여월 철봉아. 가거라.
철봉 아닙니다 단주님. 남겠습시다.
여월 해적은 바다를 지배하지만 동시에 바다에 순응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철봉 ...에.
여월 너는 항상 우리의 형제니, 어딜 가서라도 반드시 큰 도둑이 되거라.
철봉 단주님... 바다를 잊지 않겠습시다.

철봉이 여월에게 인사하고 배에 오른다. 식량까지 실리니 배가 미어터질 것 같다.
이제 여월과 장사정이 작별 인사를 한다.

여월 가라.
장사정 마지막 인사니 예의를 차림이 어떠한가.
여월 ...산은 숨어 사는 곳이고 바다는 몸을 내놓고 싸워야 하는 곳ियो. 그대 성정에 맞지 않으니 다신 이곳을 돌아보지 마시오 두령.
장사정 어디로 갈 참ियो 단주. 소마를 칠 생각ियो?
여월 우리 아이가 잡혀있소. 해적은 형제를 버리지 않소.
장사정 이 배로? 이 병력으로 가당키나 하오?
여월 바다의 일은 우리 해적에게 맞기고 산으로 돌아가시오.
장사정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산으로 갑시다. 낭자 우리 같이 오손도손...
여월 (웃는다) 예의를 차릴래도 차릴 수 없는 놈이구나. 썩 꺼지거라.
장사정 (피식) 여월 답구나! 산으로 같이 가면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태워줄 수도 있는데.
여월 바다에 머물면 승천하는 용 허리에 태워 줄 수도 있지.
장사정 산으로 같이 가면... (진지하다) 마지막으로 제안하지. 있어달라 애원하면 있을 것이오, 따라온다 사정하면 거둬주겠다.
여월 ...해적을 회롱하면 이리 되니라.

여월이 배를 묶어놓은 밧줄을 끊는다.
으아~ 비명 소리가 이어지고 잠시 후에 침병이는 소리가 들린다.
여월이 돌아서며 단호하게 명령한다.

여월 소마를 치고 바다를 되찾는다. 물과 식량을 다 버려라. 패배도, 후퇴도 없다.

여월은 상갑판으로 올라가며 수갑이 채워졌던 손을 들어본다.

85. 동 장소 [밤]

장사정이 나룻배 앞에 서서 멀어지는 해적선을 바라보고 있다.
그 역시도 수갑이 채워졌던 손을 들어본다.

86. 어촌 마을 - [낮]

장사정과 산적들이 탄 구명정이 마을 앞 바다에 도착한다.
관군의 습격으로 쑥대밭이 된 마을을 발견하는 장사정과 산적들

CUT TO

폐허가 된 마을을 둘러보는 장사정과 산적들.
겨우 목숨을 부지한 마을 주민이 실성한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살아남은 주민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있는 산만

산만 관군의 짓이랍니다! 멸절할 마을을 해적소굴이라고 뒤집어 씌워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어린 아이들은 잡아 갔답니다.

춘섭 관군이라면 모험감이?

장사정 그 놈의 탐욕이 끝간테를 모르는구나! 이 악귀놈의 목숨을 거두러 가야겠다.

철봉 어디로요?

장사정 바다로 돌아가자! 세상을 구하지 못할거라면 소중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사내아 니겠나?

철봉 아니 씨 그럼 배에서 내리지 말라고 하던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더니, 이쪽에선 저쪽으로 가자고 하고.

장사정 철봉이 니가 서열 2위다.

철봉 (넬름)...가시죠 두령. 다 죽었어~ 아주 그냥!

장사정이 앞서 나가고 철봉이 나머지에게 따르라 손짓한다.

87. 황해 - 소마의 배 [낮]

소마의 해적기가 필력이다.
망루에 올라 사방을 살피는 해적,
모험감은 하갑판에서 관군들을 독려하며 고래를 찾고 있다.
상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소마 옆에서 부두목이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건다.

부두목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대단주님.
소마 안다.
부두목 못 잡으면 어쩍니까.

소마 못 잡을 수가 없어. 이 아래가 미역밭, 그 아래가 진흙벌이거든. 고래는 진흙 없이 먹이를 먹지 않아. (모홍갑을 본다) 저 놈을 잘 지켜보거라! 나라를 구한 공을 저놈 혼자 가로채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으니...

이물에 선 모홍갑, 오만호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리고 있다.

모홍갑 고래를 잡는 즉시 내 소마를 벨 것이다. 그것을 신호 삼아 해적무리들을 모두 처살하거라!

오만호 예? 그래도 써먹을데가...

모홍갑 국새를 되찾은 공을 도적과는 나눌 수 없다. 저것들은 애초에 우리 백성이 아니다.

고개를 숙이는 오만호, 탐욕스런 미소를 짓는 모홍갑

88. 황해 - 해저 [낮]

어미와 새끼가 천천히 가라앉는다. 밑바닥을 훑어 진흙물을 들이키는 어미고래. 진흙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와 새우, 조개 등을 걸러 먹는다. 그리고 저 멀리, 다른 곳에서도 고래들이 진흙을 들이킨다.

89. 황해 - 소마의 배 [낮]

푸른 하늘 저편으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바람은 세지고 일기가 불안정한데 너울도 약간 심해진다. 소마는 미동도 않고 바다를 바라본다. 군데군데 진흙탕물이 번져있다. 소마가 손을 들어 가리킨다.

소마 봐라. 고래가 어디 있는지는 바다색이 알려주는 법이니.

부감화면, 소마의 배 주변으로 곳곳에 진흙탕물이 올라와 있다.

부두목 구름이 낮습니다. 접안을 하십이.

소마 놈이 온다. 준비해라.

부두목 바람도 수상합니다

소마 귀신고래는 용왕님의 사자라 하였느니, 쉽게 잡을 줄 알았더냐?

돛대에 묶여있는 흑묘를 바라보며

소마 고래를 잡는 즉시 저년을 제물로 바친다.

부두목 네!

소마 (계속 바다를 보며)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와.

배 좌측에서 조선 깃발과 함께 고래가 올라온다.

모홍갑 저놈이다!
소마 전 속력 좌현으로!
부두목 타각을 돌려라!

명령과 함께 좌측으로 배가 돈다.

소마 주화포를 장전하고 명을 기다려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해적들. 주화에 커다란 작살이 장전된다.
귀신고래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고래가 숨을 내쉬며 물기둥이 높이 올라간다.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싶은데 고래 모녀가 다시 바다로 사라진다.

소마 배를 멈춰라.
모홍갑 전 속력으로 따르라!
소마 아니다 멈춰라!
모홍갑 고래가 떠나지 않느냐!
소마 (단호하게) 통사! 잊었습니까. 명령은 내가 합니다.
(모홍갑이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지만) 새끼는 숨을 오래 못 참으니 금방 올라 올 것입니다. (부두목에게) 배를 멈추고 소음을 없애라.

배를 멈추는 해적들. 고요와 함께 긴장감이 돈다.

90. 황해 - 여월의 배 [낮]

여월의 배가 빠르게 바다를 항해한다.
갑판에서는 화포에 붙였던 진흙을 떼어내고 긁어내느라 바쁘고,
돛대에 붙어있는 도르래를 떼어내어 뱃전에 고정시킨다.
노가 나오고 힘찬 노질이 시작된다.
풍랑은 더욱 거세지고 용오름이 생길 듯 회오리가 몰아친다.

91. 황해 - 소마의 배 [낮]

새끼고래가 숨을 참지 못하고 수면위로 나타난다.
망루 위에서 소리가 들린다.

부하 우현이다~
소마 우현으로 돌려라.

소마의 배가 우측으로 돌아간다.

소마 새끼를 노려라. 어미가 아니다.
부두목 작살을 준비해라.

어미 고래 주위로 새끼가 장난스레 돌아다닌다.

소마 째라!

선수의 주화에서 작살이 날아간다.

하나는 새끼를 빗나가 떨어지고 하나는 새끼 등에 박힌다.

큰 소리를 내며 잠수하는 새끼, 고통에 몸을 돌리는데, 그 바람에 밧줄이 퐁퐁 감기고 만다.

소마의 배, 노대가 나오며 노를 뒤로 젓는다.

소마 후진하라! 어미를 유인한다!

칸칸으로 된 하각이 열리며 노가 나와 젓기 시작한다.

배가 후진을 하며 새끼 고래를 끌고 간다.

어미고래가 뻑뻑거리며 새끼 주위를 돌지만 방법이 없다.

모홍갑 포를 썩라!

소마 멈춰라! (모홍갑 노려보고는 부하들에게) 똑똑히 들어라 이 배에선 오직 이 목 소리만 너희들을 움직일 것이다. 사행선을 부순 놈이다! 한번의 공격에 끝장내지 못하면 우리가 당한다. 정신 바짝 차리거라!

풍랑은 더더욱 거세지고 회오리가 몰아친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미가 수면으로 올라 몸을 뒤집더니 소마의 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다가온다.

소마 자~ 놈이 온다. 온다.. 온다! 포를 썩라.

어미를 향해 발사되는 화포. 어미는 아랑곳 않고 배를 향해 돌진한다.

포 몇 개가 어미에게 명중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만 어미는 포기하지 않는다.

소마 입가에 잔인한 웃음이 피어난다.

소마 지금이다. 오룡탄을 뿌려라.

선미에서 바다로 해상 오룡탄이 떨어진다.

물 속에서 폭발하는 오룡탄... 어미 고래가 폭탄 세례를 뚫고 돌진한다.

갑판에서는 계속 오룡탄이 떨어지고 고래는 찢기고 터지면서도 돌진을 멈추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배를 깨고 새끼를 구하려는 각오 같다.

등에 박혔던 깃대도 부러지고, 부상이 너무 심하다.

고래는 마지막 오룡탄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으며 배를 들이받는다.

쿵!— 하지만 힘이 너무 약하다. 배가 조금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다.

소마 침착해라! 힘이 다했다!

어미고래가 새끼 고래 쪽으로 간다.

주위를 돌지만 어찌 구할 방법이 없다. 어미와 새끼고래의 울음소리가 구슬프다.

마지막 힘을 모아 다시 소마의 배를 향해 돌진하는 어미고래.
하지만 부상으로 힘이 약해 큰 충격을 주지 못하고 이마에 상처만 생긴다.
그 순간에도 어미의 몸통으로 화포의 공격이 계속된다.
그래도 어미는 포기를 하지 않는다.
고래가 안간힘을 다할수록 소마는 더 잔인한 웃음을 짓는다.

부하들 몇이 엄청난 크기의 작살이 달린 도르래를 밀고 갑판을 뛰어간다.
모홍갑 고래가 잡히자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소마에게 달려오는 부두목

부두목 너울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마 과연 고래가 영물이로구나~ 고래를 올리고 계집은 제물로 바쳐라!

돛대에 묶여있는 흑묘를 데리러 가는 부두목.
그때, 소마의 눈에 부하들을 지휘하고 있는 모홍갑이 눈에 들어온다.

모홍갑 작살을 내려라!

부하들이 줄을 풀고 작살이 어미 고래의 등을 내리박힌다.
어미는 움찔 할 뿐 별다른 저항도 못한다.
어미 고래가 흘린 피로 바다는 붉게 물들었다.
배가 멈추고 줄이 느슨해지며 새끼고래를 감았던 줄이 풀린다.
어미는 명이 다해간다.
이젠 힘도 없고 다만 새끼를 지키려는 마음만 남아있다.
줄이 풀려난 새끼가 어미 곁으로 온다. 꼬리로 새끼를 쳐내는 어미고래...
새끼가 다시 어미에게 오고, 어미는 다시 꼬리로 새끼를 쳐낸다.
새끼가 꼬리를 피해 어미 머리 쪽으로 오자, 어미가 주둥이로 새끼를 밀어낸다.
빨리 도망가란 뜻이다. 새끼가 뻑뻑거리고, 어미는 낮게 빼익 소리를 낸다.
어미 고래가 힘들게 눈을 깜빡이고, 새끼는 몸을 돌리며 말을 듣지 않는다.

모홍갑 끌어올려라
소마 (모홍갑의 앞을 막으며) 통사! 이건 내 배요. 명령은 내가...

모홍갑이 칼을 꺼내 소마를 목에 댄다. 꿈쩍도 않고 버티는 소마, 킬킬 웃는다.

소마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공을 독차지 하시겠지.
모홍갑 분수를 아니 다행이다.

순식간에 소마의 부하들과 관군들이 두 패로 갈라지며 대치상태가 된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대포알이 날아와 터진다.
돌아보는 모홍갑과 소마. 멀리서 여월의 배가 다가오고 있다.
선수에 서있는 여월, 옷자락이 바람에 날린다.
해적선을 본 부하들 얼굴에 두려움이 감돈다.

부두목 요...용이 부활했다...
소마 저 년이... (부하들에게) 포를 돌려라!
모홍갑 (소마 겨누었던 칼 내리며 수군들에게) 고래를 끌어 올려라.

소마 부하들은 화포를 돌리고, 수군들은 고래를 끌어올린다.
소마의 배에서 화포가 방포되고 둘의 배는 빠르게 가까워진다.

소마 여월아~ 바다귀신이 되고 싶으나~ 와라!
모홍갑 고래를 지켜라. 고래다! 고래가 먼저라고!

해적선과 소마의 배가 가까워지자 해적들이 소마의 배로 뛰어넘어온다.
수군들은 고래와 연결된 줄을 감아쥐고,
여월이 돛대 위 망루에 서 있다가 밧줄을 타고 소마의 배로 넘어온다.
여월은 수군 한명을 베어 넘기고 묶여있는 흑묘의 줄을 풀어준다.
흑묘는 탈진해 서있기도 힘들다.

흑묘 언니...
여월 (미소) 용이 되어 구하러 온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집으로 가자!

꼬맹이를 참복에게 맡기고 달려가는 여월
여월은 달려드는 소마 부하들을 베며 앞으로 나간다.
모홍갑과 소마는 막바로 여월에게 달려온다.
돛에 매달린 밧줄을 잡고 칼로 줄을 끊는 여월.
줄이 끊어지며 여월이 소마와 모홍갑의 머리를 넘어 선수로 날아간다.
고래를 끌어올리는 수군들을 처치하고 도르래 줄을 끊으려는 여월.
무방비로 노출된 여월의 등을 향해 달려가는 오만호.

그 모습을 본 흑묘, 수군이 놓친 활을 집어든다.
화살을 재워 시위를 당기는 흑묘.
탈진한 상태로 안간힘을 다하는 흑묘... 바들바들 떨리는 팔... 가까스로 당겨지는 시위...
흑묘가 시위를 놓고, 날아간 화살은 수군과 해적들 사이를 지나 오만호의 등에 박힌다.
여월을 베기 직전 화살에 맞고 쓰러지는 오만호.
그리고 여월은 고래를 끌어올리던 작살 줄을 끊는다.
선수로 달려가던 소마와 모홍갑이 소리를 지른다.

소마 안돼~
모홍갑 이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미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어 수면 아래로 잠긴다.
소마와 모홍갑이 여월에게 다가간다. 지금까지 보던 얼굴 중에 가장 무서운 얼굴이다.
여월은 둘을 상대해 싸움을 시작한다.
여월도 밀리고, 수적 열세에 있던 해적들도 밀린다. 힘든 싸움이다.

92. 황해 - 바다 속 : 고래 무덤 [낮]

힘 잃은 어미가 자꾸만 어딘가로 간다.
새끼가 어미 배 밑에 붙어 그녀를 들어 올리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깊은 심연으로 가는 어미, 어미가 새끼 고래를 머리로 툭툭 쳐서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
어미에게 몸을 비비는 새끼 고래.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어미 고래...
그리고는 생명이 다한다. 어미는 미동도 않은 채 바다로 가라앉는다.
새끼는 제자리를 빙빙 돌며 빛도 들지 않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어미 고래를 끝까지 지켜본다.

93. 황해 - 소마의 배 [낮]

거세계 여월을 몰아치는 모홍갑, 여월이 연검을 꺼내들고 싸운다.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도 둘을 상대하기는 벅차다.
어지럽게 이어지던 싸움은 점차 정리되고, 여월 일행이 갑판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한다.
바람은 더욱 심해지고 배도 너울을 탄다.
용오름이 수면을 거칠게 훑으며 함부로 돌아다닌다.

94. 황해 - 심연 [낮]

한 점 빛도 들지 않는 바다.
심해에 사는 자체발광 어류들이 지나간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는 어두운 우주 같다.
어미 고래의 육중한 몸이 천천히 가라앉아 바닥에 닿는다.
그곳은 이미 숨이 다한 고래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있고, 커다랗고 하얀 뼈들이 엄청나게
널려있다. 고래들의 무덤이다.

95. 황해 - 소마의 배 [낮]

부상 입은 참복이를 끌고 가는 흑묘.
여월 등 해적들은 이미 갑판 한 곳으로 몰렸고, 수군과 소마 부하들이 조여오고 있다.

모홍갑 모두 죽여라~

그 때, 하늘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떨어진다.
뒤를 따라 투덕투덕 떨어지는 물고기들...
그와 함께 뿌우~ 나각 소리 울린다. 소마의 부하들이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리 봐도 다른 배는 없는데 어디서 울리는 소린지 가늠 할 수가 없다.
그러다 어느 곳을 보는 여월, 환하게 웃는다.

모홍갑 장사정!

장사정이 두 개의 용오름 뚫고 나룻배를 몰아 다가오고 있다.

선수에 서서 여월을 바라보는 장사정, 마치 두 마리의 용을 물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

96. 황해 - 소마의 배 ↔ 나룻배 [낮]

나룻배에 실린 투석기 때문에 산적들은 몸도 움직이기 힘들 만큼 좁게 앉아있다.
투석기에 수류병을 올리는 산만이,

장사정 **날려라!**

투석기가 발사되고 수류병이 넓게 퍼지며 소마의 배로 향한다.
여월의 시선으로 하얗게 날아오는 수류병들이 보인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월은 장사정의 뜻을 알았다.
떨어졌던 연노를 집어 들어 쏘는 여월,
화살들이 어지럽게 날아가 수류병에 명중하고, 불길이 수군과 소마 부하들을 덮친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고 해적들이 다시 공격을 시작한다.
승기를 잡은 해적들이 돌진하는 사이 모흥갑과 소마가 여월을 공격한다.
뱃전으로 산적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장사정이 그들 사이로 끼어든다.

여월 **산적이 왜 자꾸 바다를 찾는가.**
장사정 **산적의 마지막 길은 두 가지지. 돈을 쫓던가, 님을 쫓던가!**

장사정은 모흥갑을 공격하고, 여월은 자연스럽게 소마와만 대적한다.

모흥갑 **실력이 많이 많이 녹슬었구나.**
장사정 **녹슨 칼 한 번 맞아보쇼.**

장사정과 모흥갑이 칼을 나눈다.
서로의 운명을 두고 또 한 차례 격렬한 싸움이 일어난다.
한쪽에서는 여월과 소마의 마지막 접전도 계속된다.
서로 엮히고 설키고 상대를 바꿔가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네 사람.
장사정 모흥갑의 일격을 피하며 모흥갑의 하나 남은 눈을 칼로 벤다.
피로워하며 발버둥치는 모흥갑

모흥갑 **왜 또 너냐! 세상을 가지려 했는데, 왜 또 막난 말이다.**
장사정 **세상은 가지는 게 아뇨. 나누는 거지.**
모흥갑 **으아! 어딴느냐. 와라! 장사정!**

비명같은 고향을 지르며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모흥갑.
이리 저리 날뛰다 뱃전에 걸려 바다에 빠진다.
그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는 장사정의 표정이 좋지 않다.

소마 또한 여월의 마지막 일격에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비틀거린다.
뱃전을 잡고 서는 소마, 숨을 헐떡인다.
여월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다.

소마 전설이 될 수 없다면... 물고기 밥이나 될 밖에.

바다로 늙는 소마... 파도가 그를 삼키고 싸움은 끝났다.
장사정이 여월 옆으로 온다.

여월 스스로 바다의 제물이 되었구나. (큰소리로) 소마는 죽었다. 모두 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소마의 부하들과 관군들. 여월의 말을 듣고 칼을 모두 버리고 투항한다.
크게 요동치던 바다가 서서히 잦아든다. 길게 깔렸던 먹구름이 걷히고 사이사이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다.
해적과 산적들이 얼싸안고 합성을 지른다.
그 틈을 타 은근슬쩍 여월의 어깨를 감싸는 장사정.
가만히 있을 여월이 아니다. 장사정의 목을 겨누고 있는 여월의 단검.
황당한 듯 웃으며 팔을 치우는 장사정.

97. 개경 - 왕궁, 왕의 침소 [낮]

삼엄한 경비속의 왕궁.
침소에 펼쳐진 금침위에 잠들어 있는 이성계의 모습이 보인다.
조용히 문이 열리며 왕실 수비대장 복장의 남자가 들어온다.
검을 빼서 이성계의 목에 겨누는 수비대장,
서늘한 느낌에 눈을 뜨는 이성계.
수비대장은 장사정이다. 이성계는 장군 출신답게 동요하지 않고 그를 노려본다.

장사정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오? 조선이란 이름은 명나라가 줬으니, 명나라 백성이오?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고 싶지 않소. 비록 큰 나라에 무릎 꿇어 건국했다 할지라도, 왕이 뜻을 품으면 대국의 속국이 되지 않을 것이오. 한낱 미물인 고래가 국새를 먹은 까닭은, 국호는 하사 받았으나 그들이 내려준 국새로 정사를 펼치지 말라는 하늘의 지엄한 뜻이오.

이성계 국새가!

장사정 지금 백성들은 간신배들의 모략 때문에 공녀와 환관으로 소중한 자식을 빼앗기고 고려잔당이란 누명에 목숨을 잃고 있소, 짐승인 고래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았소, 하물며 왕이 된 자가 그깟 명나라가 내려준 국새를 찾자고 백성들을 희생시킨단 말이오? 그것이 당신이 말한 새 세상이오? 어떤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지 잘 생각해보시오! 왕께서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새 세상을 만든다면, 나 또한 그대의 백성이 될 것이오.

장사정의 말에 심각한 표정이 되는 이성계. 장사정의 침묵에 뒤를 돌아보면 장사정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는 이성계, 잠시 후 피식 웃는 이성계

이성계 허허 허허허~

대인배 다운 웃음을 웃는 이성계

98. 개경 - 원덕전 [낮]

이성계의 앞에 정도전과 한상질이 었드려 있다.

이성계 고래가... 먹었던가.... 국새를.
정도전 즈은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계 (씩씩대며) 니들.... (애써 참으며) 지금 당장 공녀와 환관으로 잡아들인 아이
 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정도전 즈은하, 명나라의 요구이옵니다!
이성계 한상질은 지금 당장 명나라로 떠나도록 하라!
한상질 예?
이성계 재협상을 하란 말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니 놈들의 아들딸을 공녀와 환관으로
 바치겠느니라 알았느냐!

이성계의 호통에 부들부들 떠는 정도전과 한상질

정도전 분부 받잡겠나이다!

99. 망망대해 [낮]

상갑판에 나란히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는 장사정과 여월.
그 틈을 타 은근슬쩍 여월의 어깨를 감싸는 장사정.
수면을 가르며 새끼 귀신고래가 몸을 뒤집는다.

자막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고
 1403년 태종때 이르러 명나라에서 국새를 받았다.
 건국 이래 10년 동안 조선은 국새가 없이
 조선왕보(朝鮮王寶)라는 임시 국인을 만들어 사용했다.

- 끝 -